

주님의 교회 계획 마

왜 우리 교회에 오는가?

사랑침례교회의 성장, 2008년 5월 시작, 조금 있으면 만 8년

그 동안 많은 성장, 8명에서 650명, 30평 건물에서 700평(실평수 400평), 현금 연 7억 원
미디어 선교 현금만 연 1억 이상, 유튜브 접속 건수 하루 8000명, 급속도 성장

교회의 어려움: 2번, 다 성도가 늘면서 건물 문제로

1. 송내 교회에서 올 때: 여러 달 고민, 나와 다른 분의 의지로 소래 예배당 확보(12층, 11층 반)
2. 특히 2년 반 전에 건물 확장을 하면서

이유: 교회에 대한 믿음이 다르다.

교회는 50명 정도로 라면 먹던 시절이 가장 좋다.

100명, 200명 넘으면 무조건 쪼개서 분가시켜야 한다.

결국 6-70명의 반대하던 분들이 나가고 지난 2년 반 동안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영혼의 자유 인정, 싸우지 않고 나간 것 감사

이상한 일: 그때 구매한 반 층도 이제 모자라 교육 및 예배 공간에 비상이 걸렸다.

3. 왜 우리 교회에 오는가?

“편해서, 현금 강요가 없어서, 설교 말씀이 좋아서, 아이들 교육이 좋아서, 구제, 사랑, 민폐”
이런 이유로 오는 것을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기서 멈추면서 어찌다가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면 교회에 문제가 된다.

4. 여러 성도들의 가장 큰 우려: 교회의 대형화, 2013년 10월 11일, <교회의 크기에 대하여>

“교회는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물 흐르듯 따라야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고 날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
습니다(행2장). 또 얼마 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습니다(행
4:4). 그러므로 남녀노소 합치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적어도 20,000명의 성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시민의 수가 10만 명가량이었으므로 전체 시민의 5분의 1일이 그리스도인이었
습니다. 물론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행7장에서 스테반 사건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행8:1).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많아야 100명 정도의 성도만 있게 되었고 나머지는 온 세상으로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행1:8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5. 대형 교회 방지를 위한 대안: 무조건 쪼개서 내보내라. 말은 좋은데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 사랑침례교회는 목회자를 양성하지 않는가?

신학원 졸업자를 곳곳에 보내어 교회를 세우게 하라.

왜 예배 실황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느냐? 우려: 지역 교회를 세우는 데 방해가 된다.

곳곳에 20-3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거기서 스크린 예배드리게 하면 건물 불필요

6. 이 문제를 직시하고 2014년 1월에 우리는 제2기 회원 가입 절차를 시행하였다.

원인 분석: 지역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 믿음이 다르다.

구원받으면 우리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함.

아니다.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한다.

우리 교회의 회원: 우리 교회의 가치를 알고 지키려는 사람만 된다.

7. 그러면 목사는 안 가르쳤는가? 이미 충분히 가르쳤다.

교회의 믿음과 약속, 교회, 목사, 집사, 예배, 음악, 옷차림, 구분된 삶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서 가장 게을리 한 것: 재물로 희생하며 섬기는 것

8.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전 건축, 작정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러나 트라우마 탓만 하면서 제자의 비용을 감당하려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성장은 끝난다.
그저 그런 사람으로 끝난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고난과 불행과 트라우마를 이어가 한다.
9. 그래서 제2기 회원 가입하려면 “필수 설교 강해 40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구글 검색, “제2기 회원 가입” 14. 2. 11
10. 40선: 1.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위대하신 하나님, 3. 예수 그리스도, 4. 성령님, 5-7. 창조(3시간), 8-13. 성경론 (성경이란 무엇인가?, 계시, 영감, 보존,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등), 14-19 구원(정의, 회개, 믿음, 중생, 칭의, 성화 등), 20-26 교회(교회, 예배, 목사, 침례, 침례교회와 침례성도), 27. 헌금의 원리, 28-33. 왜 안하는가?(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방언, 찬사. 오순절 은사 운동), 34-36. 재림(휴가와 부활), 37-39. 뉴에이지, 40. 목사와 성도의 영원한 기쁨
이 40개 안에 우리 교회의 근본정신이 담겨 있다.
처음에는 40개를 들어야 회원 가입
듣기 어려우므로 10개만 듣고 30개는 추후에 듣겠다.
회원 가입 원서에 표기하기로 하였으나 빠지고 하여 뻘, 그리고 제2기 회원 가입
11.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2기 회원 가입을 한 이후로 2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이런 정신을 이해한 분들이 많지 않다. 듣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안 한 분들이 많다.
듣고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여전히 자기주장을 펴는 분들이 있다.
12. 실제로 일을 당해야 듣고 배운 것이 효력을 발휘한다.
평상시에 일이 없을 때에는 다 희희낙락한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희생이 요구되면 그때에 각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
“내가 사업을 해 보니 이전 교회에 보니,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니 등등”
13.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새로운 일이다.
성경, 목사, 예배 형식, 메시지, 아이들 교육, 미디어 선교
그것을 우리는 신약교회라고 한다.
14. 우리 교회의 3대 비전:
1.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2.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3.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
15. 이런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유지/보수하려면 같은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암3:3,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과거에는 신약교회의 원리를 지키려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
1. 성경의 최종권위(Bible's Final Authority, 딤후3:16-17), KJB만
2. 자치적 지역교회(Autonomy of Local Churches, 마18:15-17)
3. 전 성도 제사장 직분(Priesthood of All Believers, 벰전2:5-9)
4. 교회의 두 가지 규례(Two Ordinances, 마28:19, 고전11:23-32)
5. 양심의 자유(Individual Soul Liberty, 롬14:5-12)
6.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행2:41-47)
7. 지역교회의 두 가지 직분(Two Offices in Local Churches, 딤후3:1-13)
8.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마22:15-22)
16. 사랑침례교회는 이런 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교회이다. 아무나 회원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지키려면 궁극적으로 비용과 희생이 든다.
17. 나의 철학: 사람이 많은 교회 No!, 사람이 적어도 이 가치를 공유하고 지키고 보존하려는 사람들의 교회, 그렇지 않으며 이 교회는 곧 없어진다.

18. 땅에 있는 교회는 없어지고 새롭게 태어나고 없어지고 새롭게 태어난다(마16:18).

그러나 내가 있는 한 이 교회는 이런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둘 것이다. 3기 회원 가입

19. 하나님의 지역 교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회원권(Membership)

교회만 오면 등록하는 것은 천주교 관행, 유아세례를 통해 국가 교회

20. 이 땅의 모든 기관들 멤버십이 있다: 이 나라의 법 세금내고 비용 감수, 라이온스 클럽, 골프 클럽

21.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여럿 있다. 가정, 국가, 이스라엘, 교회

이 중에 교회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

그러므로 이 땅의 지역 교회는 멤버십이 가장 중요하다.

구원받았다고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 아니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 다른 데로 가야 한다.

같은 가치를 소유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만 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

22. 교회를 건축하려고 쥐어짜는가?

아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내내 현금 설교만 했을 것이다.

나는 한두 번 필요성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내 일이 아니므로..

한 가지 확실한 것: 내 삶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의 하나, “왜 사서 고생을 하는가?”

23. 희생은 금전의 희생만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돈은 못내도 마음의 고생을 하는 것도 희생이다.

24. 풀링에 대한 두 사례:

1. 40대 어느 형제의 글 소개

“요즘 교회 안에서 최대 이슈는 저희 교회의 미래(건물 건축)이겠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처음 혼자서 우리 교회가 어렵게 마련한 현재의 건물이 좁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나름 생각을 했었는데... 혼자서 내린 답은 교회의 미래 1번 방안이었습니다.

이유는... 1. 교회 성장 속도로 볼 때 조금 더 큰 데로 옮겼다가 또 금방 좁아져서 또 옮기게 될

경우 너무 그 과정이 힘들 것 같아서 애초에 확장성을 두고 강당이나 체육관 빌리면 좋겠다. 2.

교회 특성 상 평일에는 아예 쓰지도 않고 작은 모임만 2번 갖는데 큰 공간 일주일에 한번 쓰기에는

효율적으로 아깝다. 이런 이유로 1번을 생각하고 남동체육관이나 빌리러 가야지... 그랬었죠~

하지만... 이미 다 생각하시고 접촉도 시도하셨지만... 성사가 불가능하단 걸 알고 바로 포기했습니

다.---그런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앞에서 하신 말씀들,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들을

보며 4번 건축안 밖에는 답이 없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네요~ 아... 풀링을 해야 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풀링이 불가능한 저의 여건입니다.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 은행권이 믿을만한 직장이 없으므로 신용대출은 안 나오고...

집은 전세를 돌려놔서 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하고...

가지고 있는 돈은 전혀 없고... 상황이 풀링이 허락하지 않네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못하는데... 적극적으로 건축하자 풀링하는 게 좋은 거 같다고 말도 못하겠고...

다른 방안 밀자니... 답은 없고...

머리와 가슴으로는 4번 건축을 밀고 으쌰으쌰하고 싶은데, 입은 조용히 하라네요.

저희 부부는 일단 내년에 사는 집이 전세가 종료 되면 원래 집으로 들어가던지 해서 대출이 가능해지면

그 때 후발 주자로 풀링에 참여하자는 식으로 합의를 보았네요. 하지만 교회의 중요한 순간에

바로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된다고 생각하니... 계속 기분이 좋지 않네요...

중략... 자신이 원하는, 취향에 맞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건지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맞춰가고

사랑침례교회가 왜 생겼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잘 인지하고 그 안에 우리를 맞추고 지체로서

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 큰 돈을 풀링하겠다는 분 거절 사례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님의 교회 계획 시리즈는 이런 차원에서 한다.

특히 리더들 교육, 내가 할 수 없다. “우리 교회에서 생존하기 원하는 분들”, 교사들은 주중에 주요 교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맥아더 목사: 장로교 추구, 나와 교리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지역 교회에 관한 생각은 거의 같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 실현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인 수 증가와 생활 복지와 오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회 리더십을 ‘사역자’가 아닌 ‘경영자’로 생각하는 듯하다. 인간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자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사람이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요즘 소위 ‘사용자 편의를 위한 교회’란 말이 오간다.

교회 성장 전문가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이 집처럼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런 조언은 교회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문을 나설 때 ‘세상에서 이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나도 편안해’라고 생각하며 교회 문을 나선다면 그것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증거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다. 교회는 천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지역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기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명백한 계획을 파악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교회는 결코 지도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목회자, 예비 사역자, 교회의 핵심 리더십은 물론이고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필독서다. 교회 성장의 원리는 모두 성경에서 비롯한다. 이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바울은 목회자를 성경의 청사진에 따라 하나님과 힘을 합해 교회라는 건축물을 완성해야 할 건축가에 비유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설계도를 엄격히 따른다. 설계자의 의도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갔다가는 건물을 쌓아올린다 해도 곧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사태가 빚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건축을 위한 설계도다. 오직 성경의 설계도를 정확히 따르는 사람만이 굳건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교회 지도자는 올바른 계획에 따라 건물을 지어야 하는 건축가이자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목자다. 지도자에 따라 교회의 방향이 결정된다. 교인들은 영적 지도자를 본받기 마련이다. 교회는 리더십만 온전하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눈여겨보고, 영적 목자가 되는 훈련을 다시 받는 것이다. 현대 교회에서 참된 지도자들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그들은 잘못된 설계도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으며 양떼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현대 기독교의 모든 영역에서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회는 지도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한 믿음, 순전한 인격, 성숙한 영성이라는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

비장한 마음으로 이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며 이 시리즈를 수행하려고 하니 기도로 돕기 바란다.

지난 8년 동안 묵묵히 목사를 믿고 희생에 동참해 준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이 교회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이 시리즈를 진행한다.

주님의 교회 계획 마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church): 총 77회,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옴. 하나님의 기관: 가정, 국가, 이스라엘, 교회
마16:18; 18:17: 미래 사건(will, shall)

행2:47~계3:14: 신약 교회

교회들(churches): 총 37회, 행9:31~계22:16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1. 건물은 기도하지 않는다(행12:5).
2. 건물은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다(행15:4).
3. 건물은 기뻐하지 않는다(행15:22).
4. 건물은 핍박 받지 않는다(고전15:9).
5. 건물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계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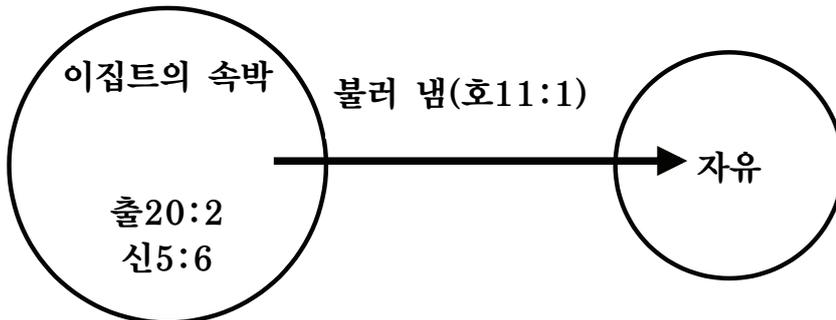
지역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회(Assembly)이다.

1. 그들이 교회와 함께 모였다(행11:26, 중요 구절).
2. 그들이 교회를 함께 모았다(행14:27).
3. 교회에 함께 모인다(고전11:18).
4.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다(고전14:23).
5. 초대 성도들은 모였다(행2:42, 44, 46).
6. 모이지 않는 교회는 성경의 용례 상 교회가 아니다.
7.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히10:25).

교회라는 말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신약에 117회)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집회(행19:32; 39), 국가 대표 축구 선수, 찬양대원 등
구약의 이스라엘(행7:38)도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즉 신약 교회는 아니다(마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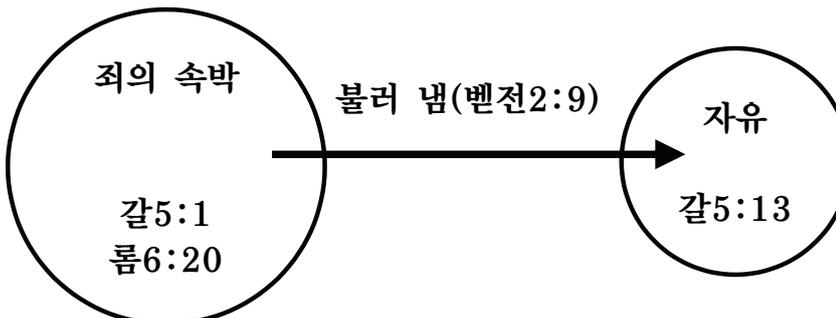
신약 교회

그리스어 에클레시아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서 나와(Out of) ~로 들어간 사람들(Into)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요일3:14), 어둠에서 빛으로(벧전2:9)



교회를 부르신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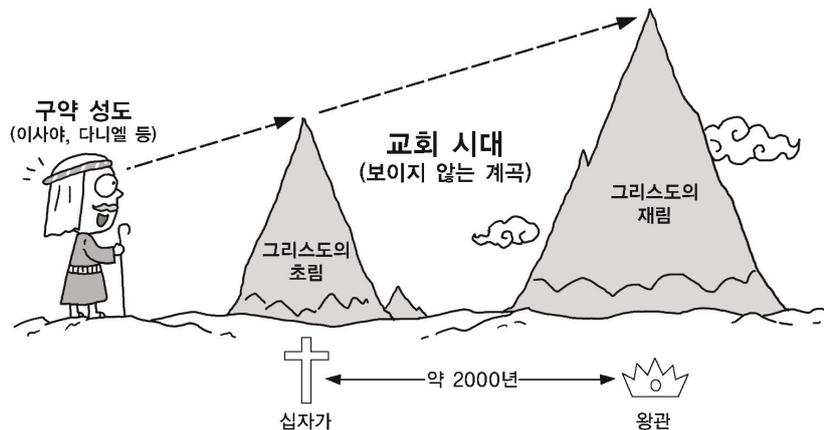
1.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고전1:2)
2.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고전 1:9).
3.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 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으니(행15:14)
4. 롬8:28-30

교회의 소유주

1.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2.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딤후3:15).
3.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행20:28).

교회에 속하는 방법

1.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12:13).
2. 성령 침례가 필수적이다.
3. 성령 침례는 오순절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다(마3:11; 행1:5; 행11:15-16).
4. 신약 시대는 엄밀히 말해 십자가 사건 이후, 더 정확히는 행2의 오순절 날부터
5. 물 침례는 성령 침례에 대한 증언이다. 6. 고전12:13은 물 침례가 아니다.
7. 고전12:13은 신약 교회의 교리이다. 8. 엡4:5의 침례는 성령 침례이다.



지역 교회와 보편적 교회

지역 교회: 신약 교회의 의미로 쓰인 교회의 경우 대부분(95% 이상) 한 지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뜻한다(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사랑침례교회).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지역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뼈대, 내장, 두뇌, 기능 등

보편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교회’ 즉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교회도 몇 군데 발견된다(히12:23).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1:22-23). 마16:18의 ‘내 교회’도 보편적인 교회이다.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몸, 지체

살전4:16-18, 휴거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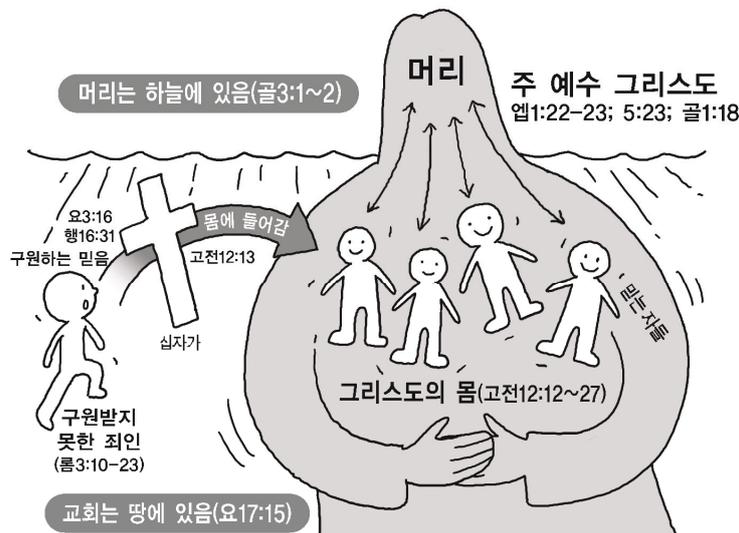
심지어 구원받고 이 당의 지역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 교회에 속해 있다.

사도 바울,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레, 마탄 로이드 존스 등 다 이 교회(장로, 감리 성결, 순복음 등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성도의 모임)

과거에는 이를 Catholic church라고 하였다.¹⁾

원래 영어 사도 신경에는 ‘holy catholic church’를 믿는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 지금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리킴,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사도 신경을 안 한다.

그러나 천주교 개념의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사건 이후에 주님의 피로 구원 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교회가 있다.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둔다(침례의 의미-고전12:13).

지역 교회와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많이 강조할 때의 문제

지역 교회의 약화, 지역 교회 참여 안 함

에큐메니즘(종교 통합) 문제

지역 교회만을 강조할 때의 문제

물 침례를 통한 지역 교회 회원권

목사의 권위 증대

교리의 왜곡

1)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을 뜻하는 ‘Universal’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카톨릭’(Catholic)으로 표현되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재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말하는 ‘자기들만의 유일한 카톨릭 교회’와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즉 ‘카톨릭’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여 서로 다른 것을 뜻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요한일서 같은 일반 서신을 영어로 ‘Catholic epistles’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결코 이런 서신들이 로마 천주교회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지역과 출신 배경,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서신을 뜻한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지금 이것들은 ‘General epistles’라고 불린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 역시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를 뜻하지 않고 ‘구원 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

주님의 교회 계획 ㄱ

지역 교회의 기능

엡4:11-12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And he gave some, apostles; and some, prophets; and some, evangelists; and some, pastors and teachers;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for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이 시대에는 사도와 대언자가 없다.

복음 전도자(지역 교회를 섬기지 않고 구령만 함), 목사 겸 교사(지역 교회 섬김이)

지역 교회의 목사 겸 교사는 누구인가?

1.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자(하나님의 모든 계획 행20:27)
2. 섬기는 일(사역)을 하게 하는 자: 복음 전도 사역, 성도 양육 사역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자: 교회의 확장
4. 목사 겸 교사는 주님이 지역 교회에 준 선물(gift)로서 성도들을 준비하고 훈련시켜 할 일을 하게 하는 자이다.
5. 목사는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적 은사(gift-고전12:4-11)가 아니다.
6. 나중에 맥아더의 책으로 자세히 설명하려 함

지역 교회에 모이는 목적

1.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완전하게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다.
2.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반드시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딤후3:16-17).
3. 교제 중심이 아니고 교육과 훈련 중심이어야 한다.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둘 다 필요한데 우선권은 교육과 훈련(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4. 이를 위해 교사와 목사가 필요하다.
5. 목사와 양들(평등과 동등): 특히 독립 교회는 이 점이 잘 정립해야 한다.

선포하는 것

스데반 사건 이후에 유대인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며 안디옥까지 말씀을 선포함(행11:19-20)

선포(preach): 신약에만 141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외치는 것'

신약 성경의 원리: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말씀을 선포하면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반드시 생긴다. 교회와 목사는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아니다. 상담이 아니다. 심방이 아니다. 감언이설, 복, 은사 No!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회개, 인생의 모든 문제 침례자 요한의 선포(마3:1), 예수님의 선포(마4:17; 23; 9:35 등)

사도들의 부활 선포(행4:2), 예수 그리스도 선포(5:42)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그리스도 선포(8:4),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선포(8:35)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 다소의 사울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바울로 만드심

그가 해야 할 일(행9:15-16): 그는 이방인들과 와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예수님의 이름 선포 바울은 회심 후 곧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함(행9:20)

복음 사역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

베드로의 믿음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에티오피아 내시의 믿음 고백: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마귀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십자가와 부활
 고전1:18, 21-24
 딤후4:1-2, 물론 1차 대상은 목사

가르치는 것

스데반 사건 이후에 유대인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며 안디옥까지 말씀을 선포함(행11:19-21)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옴. 이제 양육이 필요하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냄(행11:22).
 바나바의 특징(행11:24):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서 나오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침
 그리스도인이라 불림(11:26):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복음 선포 이후에 말씀을 가르쳐야 함: 복음 선포의 핵심(구원), 가르침의 핵심(성장과 성화)
 예수님도 가르치고 선포하심(마4:23; 9:35; 28:19-20)
 제자들도 가르침(행4:18; 5:25; 5:42)
 바울과 바나바 역시 가르치고 선포함(행15:35)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가르침(행18:11)
 바울의 로마 사역, 가르치고 선포함(행28:31)
 이 가르침이 바로 교리이다(딤후3:16-17).
 이런 교리가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엡4:11-15).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엡4:16)
 그러므로 교회와 목사는 구원과 성화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침례교회와 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지역 교회

1. 불신자를 위한 모임이 아니다.
2. 신자를 위한 모임이다(엡4:12).

주대상	부대상
성도(행20:28, 32 중요) Soul building station	불신자 Soul winning station

지역 교회

1. 복음 선포(구원) 중심이 아니다.
2. 말씀 선포(성화) 중심이다(딤후4:2).

주요 임무	부차적 임무
성도들을 먹이는 일 복음을 불신자에게 가져가도록 훈련시킴 Preach the word!(행20:27) Indoctrination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불신자를 복음으로 초청함 Preach the gospel Evangelism

지역 교회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성도를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골1:28; 엡4:13-15).

말씀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성도들 양육(딤후2:15)

주요 목표	부차적 임무
양육과 훈련 성경 전체를 선포함(행20:27; 마28:20) 어떻게 살 것인가?(딤후3:17)	구원 구원 메시지(요3:16 등) 어떻게 구원받는가?

지역 교회 요약

성도 양육 장소이다. 즉 성화를 초점으로 두는 것

비율로 말하면 목사의 설교 주제의 70-80% 성화, 20-30% 구원: 이것이 뒤바뀌면 지역 교회가 안 된다.

실제로 이단들이 성경적인 지역 교회 개념을 가장 바르게 이행하고 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다음을 보아야 한다.

건강한 유기체(질서, 딤후1:10-11)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성품), godliness

하나님의 임재와 경외감

구원의 메시지

고전14:24-25의 혼동 No!

주님의 교회 계획 4: 목사와 교회 설계도

왜 우리 교회에 나오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지역 교회란 무엇인가?

지역 교회의 원리는 거의 다 이방인들의 지역 교회를 세우고 보수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이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런 원칙에 따라 교회를 하는 사례가 필요 미국은 침례교회 가장 왕성, 델러스 제일침례교회(1868년, George Truett, Wallie Amos Criswell, Robert Jeffress), 10000여 명, 크리스웰, 제프레스 좋은 책들의 저자

그런데 맥아더 목사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가 가장 실제적으로 지역 교회를 알려 준다. 몇 가지 교리를 빼고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지역 교회 세우기 지침서 맥아더(John MacArthur, 1939년 6월 19일, 만 77세), 1969년부터 47년 동안 LA 인근 'Grace Community Church', 위키 백과를 보면 칼빈주의자, 장로교,

그러면서도 재림, 오순절주의 등에 대해서는 우리와 견해가 같다. 역시 매주 10,000명 정도 출석함, 칼빈주의를 빼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인물

오해하지 말 것: 대형 교회를 하려고 이 책 강해하는 것 아니다.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설계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법이다.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설계도를 맥아더가 가장 간결하게 실제적으로 풀어놓았고 그대로 실천하기에 이 책 선택

머리 글: 목자와 건축자

행20:28

고전3:9-11

교회 목사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사업가, 연예인, 기업 총수, 심리학자, 철학자, 법률가?

성경의 목사: 딤후2, 7가지 1. 교사, 2. 군사, 3. 경주자, 4. 농부, 5. 일꾼, 6. 그릇, 7. 중 모두 희생과 수고, 섬김과 고생

즉 교회의 리더십은 매혹적인 자리가 아니다.

목사는 귀족이 아니다. 돈, 세습, 나이, 사업 성공, 박사, 탤런트(재능)

목사: 흠 없는 인격의 소유자로 섬기려는 자세를 가진 자, 희생 과 섬김의 자리

목사는 목자이다: 양 떼 인도,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등, 즉 가르치고 선포하고 권면/징계하는 일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경영이 아니라 섬김이다(경영과 운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핵심이 사역).

현 시대 한국 교회의 문제: 교회 경영, 자기를 살피고 꼴을 먹일 시간이 없다.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 독재 No!

양 떼 목양과 성도 목양이 차이: 양 떼, 큰 기술이 필요치 않다. 아이도, 개도 한다.

성도 목양은 경건한 성품과 지식, 기술, 재능(교사, 군사, 경주자, 농부, 중, 행정, 설교자 등)

특히 목사는 지역 교회를 짓는 영적 건축자이다(고전3:9-11)

건물의 생명: 설계도, 우리에게는 신약성경이라는 정확한 지역 교회 설계도가 있다.

목사와 성도들이 같이 시공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제대로 해석하고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건물이 나온다. 해석은 목사 구약식 교회, 신약식 교회 등

그래서 "교회는 목사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 책은 그 교회 부임 후 35년 동안 이루어진 일을 요약한 것이다.

그의 교회는 매해 Pastor school을 한다. 어떻게 지역 교회를 할 것인가?

이런 데서 발표하기 위해 모은 자료가 이 책

11쪽 맥아더의 결론: "교회는 지도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목사의 믿음, 인품, 영성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교회: 나의 56년 삶의 결정체 앞으로 나를 뛰어넘는 목사들이 나오기를 원한다.

맥아더의 책은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부터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땅에서 이루는 지역 교회를 뜻한다.

1부: 교회 해부학, 2부: 역동적인 교회, 3부: 정결한 교회, 4부: 훌륭한 종의 자질
5부: 교회 리더십(직무 수행자), 6부: 진정한 목자가 되려면
우리는 일단 교회 해부학을 보려고 한다: 골격, 장기, 근육, 머리

1장 교회의 골격

목회지를 떠나 여행하는 경우 교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맥아더는 47년, 나는 이제 10년 교회 사역의 성패는 위기 관리에 달려 있다. 어느 교회나 위기가 온다. 우리 교회는 건물 문제 맥아더의 1970년대 목회: 발견의 시기, 맥아더의 목회 수락 조건: “심방이나 세세한 행정은 안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 연구와 기도, 말씀 선포에 쓸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때에 그는 본인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쳤다, 많은 성도들의 놀람 허니문 기간, 즐거움, 기쁨, 많은 사람들의 증가

새 교회로 부임하면서 그의 목표는 교인들의 이탈 방지, 그런데 엡3:20을 경험하는 시기 그런데 모든 교회는 성장과 쇠퇴의 사이클을 거친다.

첫째 세대: 진리 발견, 확립,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교회(독립침례교회), 영혼의 자유

둘째 세대: 진리 유지, 전파, 책들, 수백만 개의 카세트테이프와 CD(유료), 위성 방송, 온라인 오디오, 지금은 유튜브, 패스터 스쿨, 우리도 지금 이 일을 한참 하고 있다(4년 정도 됨), 미디어 선교

셋째 세대: 교회 사역에 무관심: 이유, 1. 첫째 세대와 둘째 세대와 함께하지 않음, 2. 위기 무경험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 문제(삿2:7)

사도 바울의 당부(행20:28-31)

목회에서 가장 두려운 일: 모든 일을 당연시여기며 무관심: 특히 새로 등장하는 세대들

우리가 지금 왜 교회 특강을 하는가? 나 역시 동일한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다(청년들도 참석). 이 교회 역시 여기까지 오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숨어 있는 성도들의 재물, 시간 희생 그런데 나중에 나타나서 무관심, No!

누구나 인생을 한 번 산다. 맥아더 역시 자기의 목회 47년, 위기를 겪으면서도 가장 유익한 시간 그래서 알려주려고 이 책을 저술하였다.

맥아더 교회의 초창기 성도들 중에는 신혼여행도 포기(16)

이런 사람들과 3세대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이것이 기득권이 되면 안 된다. 교회 사랑 우리 교회에도 이런 수고와 헌신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다.

매주일 오전 9시경, 점심, 저녁, 집 개방

건물 구매 돈이 없을 때 흔쾌히 빌려 줌, 이번에도 약 30억원 풀링

무관심은 곧바로 비판을 낳는다: 감사가 없으므로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며 불평

토머스 하디: 푸른 초원, 개똥을 보고 불평

이런 목사가 있는 교회에도 편리한 때만 오는 양체들이 있다: 주말에 다른 데 갈 돈이나 여유가 없을 때만 교회에 온다. 안일함의 극치, “예배를 드려 주고 설교를 들어 주러 온다”

키에르케고르의 말: 사람들의 생각: 목사는 배우, 자기는 비평가

실제로는 자기가 배우, 그런데 대사를 잃어버림, 그래서 목사처럼 대사를 불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림

교회를 세우는 일은 쉽지만 성장 후 안일하게 된 사람들을 고치는 일은 어렵다.

목회를 그만두려는 젊은 목회자의 편지: 직분자의 3분의 2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참석(미국 3번)

제직 회의에도 마음대로 빠짐, 바로 이런 안일함이 교회를 망친다.

맥아더는 이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기 위해 이 책 저술(벧후1:12-13, 15)

지역 교회의 근본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주님의 교회 계획 5: 교회의 골격

왜 우리 교회에 나오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지역 교회란 무엇인가? 목사와 교회 설계도
1세대(발견의 시기), 2세대(전달 및 확립의 시기), 3세대(무관심)
교회를 세우는 일은 쉽지만 성장 후 안일하게 된 사람들을 고치는 일은 어렵다.

지역 교회의 해부

교회는 몸이다. 그러므로 해부학 측면에서 뼈, 장기, 근육, 살로 이루어짐
지역 교회 역시 뼈(근본 진리), 장기(영적 태도), 근육(여러 기능), 살(프로그램의 형태)
이 넷이 조화를 이루며 몸을 형성한다. 하나라도 없거나 상하면 기능 상실

지역 교회의 골격

몸이 활동하려면 뼈대가 확고해야 한다(건물도 마찬가지). 교회 역시 근본 진리가 뼈대로 서야 제 기능
1.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이자 교회의 목표(잠9:10)

많은 교회들이 인간 중심, 목적이 이끄는 삶, Rick Warren 등: 사람의 기호에 따라 교회 형성
심리 상담, 자긍심 고취, 오락(록음악), 기복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벧전1:15-17).

나는 점점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크게 보여야 한다.

내 만족,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는 것(요17:2)

서점에 쓰레기 같은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성공, 인간관계, 처세술
맥아더의 설문 조사: 가족 관계를 다루는 책이 필요하다.

과연 책이 부족해서 가족 문제가 생길까? No!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므로 생긴다(약4:8).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난다. 가능성이 보인다.

2. 성경의 절대권위

교회의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다(딤후3:16-17).

동성애가 죄인가, 아닌가? 여자 목사, 집사 가능한가?

은사주의자들은 성경+계시를 주장한다: 성경은 마스코트

꿈과 직통 계시를 따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직통 계시를 받는데 성경이 왜 필요하겠는가?

성경을 다 믿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마4:4의 의미가 무엇일까?

딤후2:15

어떤 목회자의 사례; 2년만 목회, 52편 설교, 2년에 걸쳐 두 번 하고 옮김

이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가르침, No!(행20:20-21, 27)

3. 건전한 교리: 오늘날의 많은 설교: 연약한 설교, 부드러운 설교

교리: 마귀가 의미를 변개시킨 단어 중 하나

a. 교리는 쓸데없는 말장난이다. b. 교리는 분열을 가져온다. c. 교리와 영혼 구원은 양립할 수 없다. d. 교리는 재미없고 실제로 쓸모가 없다.

교리(doctrine): 단수 51회(구6, 신45), 복수 5회(신약에만), 총 56회

a. 교리의 정의: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것

b. 교리는 반드시 빛과 어둠을, 참과 거짓을, 생명과 사망을 나눈다. 교리가 없이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c. 교리를 알면 사람이 열정에 차게 된다(눅24:32; 계1:3; 22:7).

교리의 중요성

- a. 교리는 독극물을 막아 준다(딤후4:1, 13-16; 딤후4:1-4).
- b. 교리는 성도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준다(엡4:14).
- c. 교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다.
- d. 교리는 성도를 세워 준다(딤후2:15)
- e. 교리는 성도를 무장시켜 준다(딤후3:13-17; 엡6:10-17).
- f. 잘못된 교리는 이단을 양산한다.

성경이 주어진 목적: 딤후3:16-17

- a. 건전한 교리(sound doctrine): 4회(딤후1:10; 딤후4:3; 딤후1:9; 2:1)
- b. 목회 서신(딤후, 디도서)의 교리: 17회(단수 16회, 복수 1회)

성도들을 위한 기본 교리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사탄과 천사들, 사람, 죄, 구원, 교회, 예언(종말론)

맥아더의 경험. 그레이스 교회 초창기 에베소서 강해, 그리스도인의 지위

고등학교 시절 축구 코치: 자네 덕분에 에베소서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지위를 알게 되었네.

4. 순결한 신앙 인격

세상의 매스미디어는 대부분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친다.

세상 문화의 극심한 타락, 동성애 Free sex 등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

바울의 권고(고후7:1)

이를 위해 교회의 권징이 필요하다(마18:15-17).

교회는 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5. 영적 권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역 교회의 목자인 목사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

유기체이면서도 조직체

다스리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복종해야 한다(히13:7, 17).

그들의 직무는 성도들의 혼을 보살피는 것(살전5:12-13)

교회에는 목사와 집사가 있다: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다.

리더라 해도 맡은 직무가 다르다.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온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그보다 못한가? 아니다. 직무가 다르다. 베드로는 설교를 잘했다.

요한은 어떤가? 그는 목회와 글을 잘 썼다(요한복음, 1,2,3서, 계시록)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을 말을 잘하였다. 그러나 바울을 바울로 만든 사람은 바나바이다.

교회의 리더십은 다양한 책무를 수행한다. 나중에 자세히 할 것이다.

사랑침례교회의 비전: 교회의 골격

1.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계4:11). 하나님
2. 참된 신약 교회를 추구한다(마16:18). 성화(인격), 영적 권위
3. 진리의 말씀을 추구함(마4:4): 성경과 교리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주님의 교회 계획 마: 교회의 장기

교회: 지역 교회

빠대: 1.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2. 성경의 절대권위, 3. 건전한 교리, 4. 순결한 신앙 인격, 5. 영적 권위

사랑침례교회의 비전: 교회의 골격

1.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계4:11). 하나님
2. 참된 신약 교회를 추구한다(마16:18). 성화(인격), 영적 권위
3. 진리의 말씀을 추구함(마4:4): 성경과 교리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장기: 교회의 영적 태도, 교회의 생명

장기: 죽은 사람도 빠대는 있다(정통주의, 율법주의). 살아 있다면 장기와 혈액

장기: 교회의 영적 태도,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다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도 중요하지만 “그리하는 동기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

언행은 얼마든지 위선과 가식으로 표현 가능, 그러나 “참인가, 거짓인가?”

입이 건 사람, 아무리 양치질해도 변하지 않는다. 속중심의 변화가 있으면 자동 치료
아무리 조직 개편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소용없다. 대단히 중요한 일

속중심이 변해야 산다(렘17:9-10).

맥아더 목사 그레이스 교회 취임, 주일학교 운영 방법 제안, 성도들 거부, “먼저 목사 자신을 입증하라.”

몇 년이 지난 뒤 이번에는 교육 위원회가 같은 안 제안

목사도 이렇게 시험을 받는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 변화, 영적 태도 고취가 건전한 교회에 매우 중요함

맥아더: “헌금, 예배 참석, 1주일에 5시간 기도, 매일 성경 읽기” 강요하고 싶지 않다.

피상적인 접근은 문제, 여기서 주일 성수, 십일조, 주자창 봉사, 나중에 장로 No!

태도나 성향이 옳지 않은 데도 ‘선한 사람’ 혹은 ‘좋은 성도’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다.

여기서 율법주의가 나온다.

위선자가 배출된다(사1:10-15).

1. 순종

바른 태도를 위한 필수 조건, 다른 모든 영적 덕성을 가능하게 하는 모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다(삼상15:22).

번제헌물, 희생물보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심

구원 이후 성화의 삶은 어렵다.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어떤 분의 편지, 맥아더와 교회 사역 칭찬, 자기도 바르게 산다.

“이성에게는 끌리지 않는데 특정 짐승을 보면 성적 유혹을 느낀다. 전혀 죄책감이 없다. 주님이 우어라
해도 이것은 버리지 못한다.”

맥아더의 편지: 그것은 명백한 죄(레20:15)

그의 편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너무 성경에만 집착한다. 하나님의 역사와 생각을 바로
이해하라.” 성경을 제외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생각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요일2:5

호주의 켄 햄, 집사와 목사 이야기(딤후3:1, 12), 한 아내의 남편

동성에 등 다 자기 정당화, 즉 불순종

목회의 목적: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육성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바뀌어야 한다(벧전1:14; 고전6:10-12)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리더들이 특히 순결하고 헌신적인 교인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한다.

젊다고 활력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넘쳐야 화력이 생긴다.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의 장로들, 다 나이 든 사람들이다.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교회가 젊은 사람들에게만 의존하면 잘못되기 쉽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함

목사의 설교: “어느 형제가 들어야겠군.” No!

2. 겸손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이다. 늘 교만과 싸워야 한다. 마귀의 죄, 아담의 죄

예배당 거축, 강단용 대형 의자 5개(등받이에 왕관), 목사 가운데, 큰 부담, 맨 앞에 앉는다.

맥아더 교회의 초점: 자긍심과 교만이 넘치는 사회에 맞서는 사람들(막10:43-45; 빌2:3-4)

특히 젊은 사람들(벧전5:5-6)

3. 사랑

겸손해야 바르게 사랑한다.

성경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행위(고전13:4-7)

그래서 그런 사랑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 준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10:27). 선한 사마리아 사람, 종교인이 아니다.

우리의 이웃: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히 교회는 영적 필요를 채워 주는 기관

그러나 육적 필요인 구제가 1순위로 가면 교회가 주민 센터가 된다.

맥아더 교회 방문자 사례 읽기

4. 하나 됨

예수님의 기도(요17:21)

엡4:2-6

하나 됨은 이미 존재하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우리 교회 motto: 싸우지 않는 교회, 나가더라도 축복해서 내 보내기

사람이라 의견이 다르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하나 됨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성숙한 교회의 지표(고전1:10-11)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에 리더십을 허락하셨다.

목사와 집사, 지역 인도자 등

리더십의 특징: 권위 부여,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맹종이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

주님의 교회 계획 ㄷ: 교회의 장기 ㄷ

인간 해부: 뼈대, 장기, 근육, 교회도 마찬가지

뼈대: 1. 하나님 두려움, 2. 성경의 절대권위, 3. 건전한 교리, 4. 순결한 신앙 인격, 5. 영적 권위

장기: 교회의 영적 태도, 교회의 생명

1. 순종: 바른 태도를 위한 필수 조건, 다른 모든 영적 덕성을 가능하게 하는 모체
2. 겸손: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 늘 교만과 싸워야 한다
3. 사랑: 감정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행위(고전13:4-7)
4. 하나 됨: 하나 됨은 이미 존재하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5. 섬김

교회에는 섬길 일이 많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길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편안히 믿음 생활’ 모순
고전4:1,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 가운데 가장 첫째 종”

여기의 사역자는 그리스어로 노예선의 밑바닥에서 하루 종일 노 젓는 자

사역자: 복종하는 종, 조건: 신실함(고전4:2)

종의 기능(롬12:4-8): 대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헌금), 리더십, 긍휼

고전12장: 지체, 다양하게 섬기는 일

종의 자기 인식(롬12:3): 착각하면 안 된다.

자기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

섬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정체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사역으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고 리더들과 의논하라.

동일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다양하게 섬겨야 한다.

1970년대 <월간 무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기사, ‘900명의 사역자가 일하는 교회’

즉 성도들 모두가 각각의 선물로 섬긴다.

교회 사이트, 교회 소개, 섬기시는 분들

맥아더 교인들 문의: 병문안, 유아실, 화장실, 창문 청소, 전도 봉사, 주일학교 교사

우리 성도들: 옥상, 주차, 청소, 식당, 설거지 등 굵은 일

에바브라(골4:12):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리며 섬기기 원해야 한다. 계급이 아니다.

에바브로디도(빌2:25-30), 빌립보 교회 회원

빌2:29,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6. 기쁨(Joy)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반응

겉으로 드러나는 충만한 감정

진지함이 중요한데 그것이 우울함이 되면 안 된다. 침울한 교회 No! 기쁨이 있어야 한다.

happiness와 다르다.

하나님의 왕국(롬14:17)은 의와 화평과 기쁨

빌4:4, 기뻐하라

지나치게 내향적인 사람은 늘 우울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힘들어도, 죄가 아무리 많아도 기뻐해야 한다(행16:25).

7. 화평과 평안(Peace)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전7:15). 싸우지 않아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남기셨다(요14:27).

하나님의 평강(빌4:6-7)

그래서 우리는 Peace maker가 되어야 한다(마5:9): 사람의 본성은 분열과 다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작심해야 한다.

그러나 화평하게 지내려고 양심과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면 안 된다.

과거 20년 성경 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믿음과 양심을 버리는 일은 안 한다.

한국에서는 이단 정죄가 많다: 다르거나 수세에 몰리면 이단으로 정죄,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고 함
이단 정죄: 한 믿음을 가진 집단(개인)이 자기와 믿음이 다른 집단(개인)을 옳지 않다고 정죄하는 일

이것을 피하기 위해 양심과 믿음을 버려야 할 상황이 오면 점잖게 신사적으로 이단이 되는 편을 택할 것이다. 3-40년 지나 죽으면 곧 시비가 가려질 일

8. 절제

원래 의미: 죄를 멀리하고 옳은 일만 하는 것

한정된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값어치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한다.

고전9:24-27

이기려면 절제해야 한다(고전9:25). 나의 삶은 매우 단조롭다: 주중 학교, 주말 교회 동창회 등 모두 삼간다. 어떻게 다 참석하는가? 가장 가치 있는 일에만 몰두한다.

절제는 몰입을 뜻한다. 큰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절제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된다.

9. 유연한 태도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 본 적이 없다.” 유연성이 없는 교회는 실패한다.

나도 여러 교회를 거쳤다. 딱딱한 교회들, 믿음의 본질이 아닌 한 유연해야 한다.

특히 특정 전통(마15:2-3), 전통에 매일 필요는 없다.

맥아더의 예: 친척 방문, “크리스마스이브에 저녁 예배가 있느냐?”, “없다. 가족 중심”, “우리 교회는 있다,” “가서 예배드리느냐?” “안 간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있다”

수요일에 왜 안 모이냐? 새벽기도, 금욕 철야기도 등 왜 안하느냐?

맥아더 교회에 문의: 교회 조직표를 보내 달라.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바뀌기 때문에.

사랑침례교회도 마찬가지, 지난 주 금요일 모임 없음 문자 보냄

다음 주일에는 소래 공원에 간다고 문자 보냄

바울의 사역의 유연성(행16:6-7), 소아시아에 남기를 원함,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와 유럽 사역

우리 교회의 섬김도 마찬가지: 무엇이 바뀌는데 이것은 유연성이다. 오후 예배 참석 요구

맥아더의 예: 한 분 프랑스 선교 원함, 열심히 불어 공부, 캐나다 몬트리올로 감

건축 폴링: 유연성의 문제

1부 2부 예배: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구성원이 바뀌면 할 수 있다.

10. 성장 욕구

벧전2:2, 구원 이후에는 말씀의 젖으로 성장해야 한다.

사람이 성장을 멈추면 문제가 생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히5:12-14).

교회의 크기를 인위적으로 정하면 안 된다. 크게 될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성장은 있어야 한다(벧후3:18)

말씀 사모 및 묵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배, 찬송, 섬김, 헌신 등 모든 면에서 자라야 한다.

11. 소망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인간이다. 오해, 갈등, 미움, 다툼 등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있다는 소망이 없으면 매우 힘들 것이다(롬8:23-25). 자기의 불만을 자꾸

토로하러 다니면 본인도 패배, 교회도 패배, 주님이 알아주실 날을 소망하고 참자. 솔로몬 재판

지난 주: 아무리 내게 심적 고통이 와도 “양심과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

고후1:8-10, 영원한 것 소망, 명확히 드러날 때가 온다. 우리의 보화가 드러날 날(마6:19, 21).

주님의 교회 계획 마뎀: 교회의 근육 마

인간 해부: 뼈대(육체의 형태), 장기(양분 공급), 근육(일하게 하는 힘), 교회도 마찬가지

뼈대: 1. 하나님 두려움, 2. 성경의 절대권위, 3. 건전한 교리, 4. 순결한 신앙 인격, 5. 영적 권위

장기: 교회의 영적 태도, 교회의 생명, 1. 순종, 2. 겸손, 3. 사랑, 4. 하나 됨, 5. 섬김, 6. 기쁨,

7. 평안, 8. 절제, 9. 유연성, 10. 성장 욕구, 11. 소망

근육: 몸인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

1. 설교와 가르침

둘 다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설교(선포)는 일방적인 외침, 가르침은 설득하며 알려주는 것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일: 설교와 가르침

사도행전 1:8 설명, 증인, 말하는 사람

사도행전 11:19-26 설명

현대 강단의 문제: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다루지 않는다. 도덕 윤리 시사 문제

어떤 분의 말: “코미디 토크 쇼에 왜 목사가 나오지?” “듣기 야한 말 하던데 부끄럽지 않나?”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주로 QT 혹은 팔호 안에 답 쓰기

QT에 몰들면 안 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성경의 객관성을 무시하고 주관성만 이야기하면 성경이 마술 도구

금요일 사사기 기드온 이야기: 6장의 양털 표적(36-40): 양털 한 뭉치, 이슬이 양털에만, 양털에만

물이 있어 짜냄, 두 번째, 양털만 마르고 다른 데 이슬

무신론자 이야기: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면 나를 당장 죽여 봐”, “없지”

하나님을 내게로 한정시키면 안 된다. 나의 경험으로 한정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려주겠다.” 등의 가식이 나온다. 하나님의 뜻, 사역지 바꾸는 일

이러다 보니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신천지 등의 신학 교육에 다 넘어간다.

디모데전후서: 목회서신의 주요 강조점

말씀 선포(딤후4:1-4) 설명, 바울의 유언

핵심 내용(딤후3:16): 성육신의 신비, 복음

맥 목사님의 교회 선택 이유: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딤후4:6, 11, 13, 6, 오로지 말씀, 딤후5:17 말씀 사역자 장로들

딤후2:15,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너무 말씀만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다.”

선포와 가르침이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바른 일이 아니면 소용없음, 그래서 선포와 가르침이 필요함

성경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딤후3:15).

성도를 완전하게 한다(16-17).

그런데 이리 하려면 목사가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성경만 보라는 것이 아니다. 잘 준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다.

눅12:11-12를 남용 혹은 악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치려면 많이 배워야 하고 연구해야 한다. 조직 신학이 바로 서야 한다.

그러므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체험과 프로그램으로 교회 운영

맥 목사님 교회의 특징: 설교와 강해로 충만하다.

우리 교회: 일주일에 세 번 모임, 설교 1회, 강해 2회, 나머지 섬김 교제 등

2. 전도와 선교

전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교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교회는 교회 자신과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빛의 역할

세상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려야 한다.

전도의 두 방법: (1) 삶, (2) 말, 즉 언행이 복음 전도다.

1. 삶의 전도

옆의 교수의 말 “정 박사, 저 사람 교회 다니지. 그런데 왜 그 모양이야.” “요즘 문제되는 것은 다 교회와 목사더라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니 교회의 전도가 먹히겠는가?

새벽부터 북 치고 장구 치고 전자 악기, 특새, 주여 3창 모습을 보라.

고전14:23, 33, 40, 언행, 외모 등이 기록해야 한다.

소금(마5:13),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되는가?

빛(마5:14-15), 맥 목사님 쇼핑센터나 식당에 가면 담배, 술 숨기기

2. 말의 전도(벧전3:15)

많은 그리스도인이 북극의 강물처럼 얼어 있다.

전하되 바르게 온전히 전해야 한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특새, 십일조, 주일 성수 하면 복받아”

3. 선교: 세계를 향한 전도(마28:19-20)

내가 갈 수도 있고 가서 하는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

4.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어디든지 가면 일단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 그 뒤 이방인

국내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으나 성경 문제, 교리 등에서 취약하다. 먼저 그들에게 진리 전달

현 시대 가장 좋은 도구: 미디어 선교

장점: 국경과 시간의 제약이 없다. 빠르게 올리고 CD, 책자, 전도지 무료 배포

여러 목사 선교사들 지원, 아시아의 한 국가 선교사 지원

아직 선교는 미약하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부담은 없다.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

주님의 교회 계획 44: 교회의 근육 20

뼈대, 장기, 근육, 머리

근육: 일하게 하는 요소, 1. 설교와 가르침, 2. 전도와 선교

3. 공예배

요4:23, 영과 진리로 예배, 항상 예배

그러나 따로 시간을 떼서 온 성도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신약 성도들은 주일에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면 인생에서 패하기 쉽다.

일 주일에 하루는 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한다: 인간의 본분
이때에 기도, 찬송, 설교, 교회 소식, 교제 등

지역 교회의 문화와 철학 이해, 전도 선교, 교육 목표 등 공유
매일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산다.

일주일 시작하면서 가장 귀한 시간

4. 기도

가장 어려운 토픽, 성경에 여러 경우의 다양한 사례가 나온다.

성경의 기도는 대개 골방 기도이다. 오픈된 공간에서의 기도는 별로 없다.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 우리 교회는 기도를 장려한다(기도 모임).

그런데 오픈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서로 모여서 하더라도 통성 기도는 안 한다(혼동이 생길 가능성).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 교회의 일, 우리는 이런 원칙 하에서 기도
하나님께 알릴 것을 바로 알리고 질서 있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홀로 하는 것이기에 어렵다.

목사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 나도 매우 힘들다.

1.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한 의식주에 관한 것은 주님께 맡긴다(마6:33-34).
2. 필요 이상으로 구하지 않는다. 탐욕이 된다. 목동, 대치동의 아파트
3. 그러다 보니 내 것 위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교회의 필요: 자식들, 손자들
4. 교회의 형제자매들 간의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5.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의미(살전5:17),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기도의 삶이다.
6. 기도의 효력(약5:16)을 믿고 가능하면 남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라: 특히 병자들, 지친 자들

5. 목양: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

이것은 목사의 주된 임무 중 하나이다.

요21:15-17,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목사: 양 무리를 다스리고 먹여야 한다(벧전5:2; 행20:28). 여기에 돌봄이 들어 있다.

동시에 성도들도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요일3:17).

현재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목양 즉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

양파다 다르다: 많이 원하는 사람, 가능하면 묵묵히 지내기 원하는 사람

이 부분 역시 교회의 형편에 따라 다르다.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

주로 자립하기 원하는 분들이 다수

돌봄을 받으려면 교제를 통해 자기 사정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애경사: 현재는 애경사 위원장과 지역 인도자 중심

공평하게 한다.

6. 건전한 가정 사역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가정, 정부, 이스라엘 신정 국가, 교회

우리 교회는 항상 개인, 가정, 교회를 우선순위에 둔다.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이다. 아이들과 함께 오전 예배, 결혼시리즈

7. 제자 사역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마28:19-20)

바울의 유언(딤후2:2), 같은 것들

에베소 교회에서의 목회(행20:31): 3년 동안 훈계

바울과 디모테로 이어지는 사역(고전4:17)

우리는 인위적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없다.

 금요일, 주일 오후 성경 공부만으로도 성경 공부는 충분하다.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원이 있다.

8. 헌금

주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구약 시대: 십일조와 각종 헌물, 적어도 수입의 23.3%

신약 시대: 역시 성도들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십분의 일 이상을 드리자.

청지기직 개념: 우리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 자발적인 헌금

헌금의 원리: 고후9:6-8, 11

헌금은 주일에 드리는 일반 헌금과 특별 목적 헌금이 있다.

 우리는 일반 헌금으로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 운영

 특별 헌금: 미디어 선교, 구제, 건물 헌금

 건축을 위해서는 폴링 제도 운영

9. 교제

교제는 지금까지 다른 교회의 모든 기능을 아우른다. 모여야 교회이다.

교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성경 공부, 경건 기도 모임,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의 통계: 교제가 없는 분들이 많이 실족한다.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꾸밈없이 나를 드러내는 것

 위선과 가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면 교제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역 모임 교제, 자매 모임, 금요 모임 교제, 취미 활동 교제, 찬양 교제, 기도 모임 교제 등

많은 데도 없다고 하면 어렵다. 최선을 다해 교제 기회 제공

새로 방문하시는 분은 대개 목사와 점심 식사 교제

10. 교회의 겉모습

뼈대, 장기, 근육이 바르면 겉모습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목사 유무, 단수 복수, 장로, 침례, 감리.

뼈대: 1. 하나님 두려움, 2. 성경의 절대권위, 3. 진전한 교리, 4. 순결한 신앙 인격, 5. 영적 권위

장기: 교회의 영적 태도, 교회의 생명, 1. 순종, 2. 겸손, 3. 사랑, 4. 하나 됨, 5. 섬김, 6. 기쁨,

 7. 평안, 8. 절제, 9. 유연성, 10. 성장 욕구, 11. 소망

근육: 1. 설교와 가르침, 2. 전도와 선교, 3. 공예배, 4. 기도, 5. 목양, 6. 가정 사역, 7. 제자

 사역, 8. 헌금, 9. 교제

많은 목사들이 맥 목사님 교회 방문: 그들은 외적 모습을 보고 간다.

맥 목사님 교회 방문: 2-3,000킬로미터 떨어진 주에서 방문, 교제, 온 이유 “이사해서 이 교회에 다니려고” 맥 목사님의 감격

“우리는 직업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로 몰리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믿는다.

곳곳에 바른 교회들이 세워지고 가능하면 그곳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기 원한다.

사실 교회만큼 좋은 데는 없다. 또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상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회의 머리를 보아야 한다.

주님의 교회 계획 10: 교회의 머리

몸: 뼈대, 장기, 근육, 머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머리,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머리는 몸을 통해 성품과 본성을 드러낸다.

교회의 주인(마16:16-18)

골1:18; 엡1:20-23; 4: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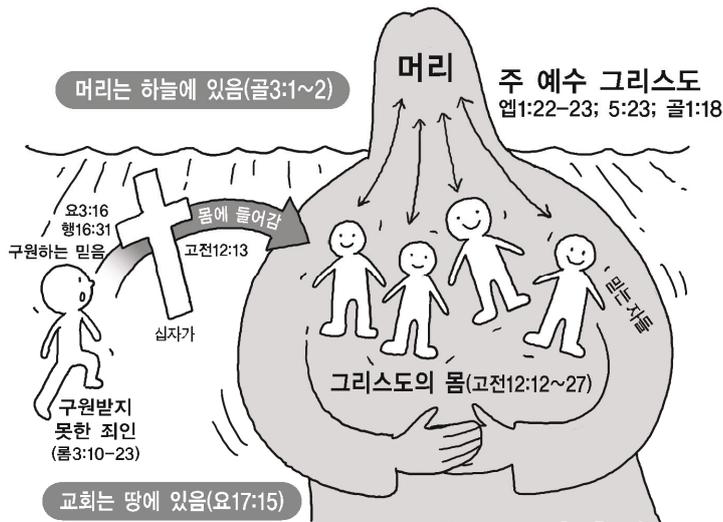
이 구절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이 몸의 지체들(고전12:27).

그러면 이 몸의 머리는 누구인가(골1:18)?

교회는 살아 있는 지체들로 구성된 살아 있는 유기체(몸)

사람이 어떻게 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둔다(침례의 의미-고전12:13).

머리는 하늘에 있고(골3:1-2) 교회는 땅에 있다(요17:15).

교회의 각 지체는 머리와 다른 지체에 연결되어 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다.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신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 침례의 의미로 보았다(고전12:13).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가? 십자가를 통과하였는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를 믿었는가?

오늘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교회라 불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고전3:5-7)

우리는 실패해도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히13:20-21

이것은 히브리서 요약, 평안(평강), 부활하신 그리스도, 피, 언약, 영적 성숙, 성도들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A.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1. 그리스도의 이름(마1:21), 히2:9-10

2. 그리스도의 피

구약을 세울 때도 피가 있었다(히9:16-22).

신약을 세울 때도 피가 필요하다(마26:28), 영원한 언약의 피(히13:20)

3.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고전15:20-23)

B. 양들의 큰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10:11), 목자장(벧전5:4)

교회가 커지면 목양이 실로 어려워진다. 맥 목사님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뛰어넘는 우리의 사역을 강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안 돌보면 안 돼. 강제로라도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 넣어야 해.”

이렇게 무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때로는 주님의 양이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놓아야 한다.

맥 목사님 말: “그리스도의 모든 양들을 일일이 돌보아야 할 최종 책임이 내게 있다면 나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최선을 다한 뒤 큰 목자에게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변호자가 계신다(요일2:1).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히4:15).

그분은 양들을 위해 강림하실 것이다(벧전5:4).

언제나 동일하시다(13:8).

그러므로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강박감은 버려야 한다.

C. 주님이신 그리스도

히13:20의 주: 주인이라는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1.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사랑침례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 주님이 다스리신다(벧전5:1-3). 목사와 성도 모두의 책임
히13:7, 17

2. 교회를 가르치신다(요15:26; 16:12-14).

말씀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가르치신다(엡4:11-12).

3. 교회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딤후3:16-17).

여기의 완전은 1차적으로 성도의 성숙을 뜻한다.

주님은 지상에서 구속 사역, 지금은 우리를 위한 성화 사역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지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요일2:28-3;3; 엡4:13).

여기서 완전의 의미는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찢어진 그물을 고치는 것

그러므로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신다.

이 일은 말씀과(딤후3:16-17), 기도(살전3:10) 그리고 교회에서의 교제로 가능함(엡4:11-12).

또한 주변 성도들이 이 일을 도와 줄 수 있고(갈6:1), 고난도 도움이 된다(벧전5:10).

특히 몸으로서 교회의 완전은 권징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회에도 문제가 많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다(요일5:16-17; 고전11:27-30).

맥 목사님은 이런 차원의 완전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였다.

D. 교회의 머리 요약

1. 머리는 몸을 통해 성품과 본성을 드러낸다.

2. 머리는 지금도 땅에서의 사역을 한다.

3. 머리는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지도한다.

4. 머리는 몸에 영양분을 준다(엡4:16; 5:29).

5. 머리는 교회라는 유기체의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주님의 교회 계획 11: 초대 교회

몸: 뼈대, 장기, 근육, 머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머리,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몸은 머리의 성품과 본성을 드러낸다. 그 머리 즉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마16:16-18)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 형성: 구약에는 없었다.

마태복음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진정한 신약, 복음서는 거의 다 구약 사건(유월절에서 주의 만찬)

사도행전: 유대인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변천

베드로에서 바울로, 장로 통치에서 감독(목사) 통치로, 집사의 직무(딤후3)

교회: 신약 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등으로 세분화 가능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보이는 교회'만 안다.

그래서 지역 교회 지상 교회는 세상을 향한 증인 혹은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세상에 천명한다.

어떤 이들은 빌딩에서 모이는 구체적인 교회는 싫어한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태동 후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동일함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서 상황 반전, 가정 교회, 후에 건물 교회

사도행전에는 초대 교회(보이는 교회)의 기본 형태 묘사

행2:42-47

초대 교회의 설립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120명(행1:15), 대개 가난한 사람들, 어부, 농부, 노동자 계층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약속(눅24:49); 행1:4,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침례, 충만, 급속도 부흥

하루에 3,000명 추가됨(행2:41), 하루에 5,000명 믿음(행4:4)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한 배경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행2:44).

설명(행3:19-21),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사도의 가르침, 교제, 빵을 떼고 기도에 힘씀(2:42)

이들(100% 유대인)은 거리 성전 가정 어디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였다(2:36;
4:10-12).

그 결과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2:47).

오락이나 눈속임을 하지 않았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감
구체적으로 장로/집사 등이 임명되기 전까지 약 7년 정도 12사도가 교회 치리

시간이 흐르면서 일곱 사람을 택하여 복음 전도자와 교사로 임명하였다: 빌립(행6:5)

집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딤후3의 집사와는 거리가 멀다.

유대인들의 불순종 지속, 이방인 사역으로 넘어가는 단계

행9장에서는 사울이 회심하여 복음 선포

오순절 사건 뒤 10년쯤 지났을 때에 행10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에 의해 구원받음

이후부터 베드로는 쇠하고 바울이 흥하면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 형성

행13장 이후로 바울, 바나바, 실라 마가 등이 여러 개의 독립 교회 설립

교단 혹은 교파 없음, 성령님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됨(엡4:1-6).

유대인, 이방인, 빈부귀천, 남녀노소, 교육 비교육, 모든 계층의 사람들: 성령님의 한 교회

그런데 교회는 변화를 거치면서 이제는 기업과 같은 구조와 형태: 위원회, 연합회, 부서, 프로그램

특히 극장이나 댄스파티 장처럼 변하면서 오락 장소, 연기를 보여 주고 있다.

초대 교회의 사역

목회 서신: 바울의 마지막 서신들, 계시의 정립,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사역과 구조를 규정한다.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교회 개척

1년 정도 머문 뒤 감독(장로, 단수든 복수든)을 세운 뒤 새 교회 개척(딤후1:5)

교회의 기본 임무: 전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딤후3:16-17)

목사의 사견, 세상 이야기, 눈물 간증, 가려운 귀 프로그램, 목상용 책자 보급No!

전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딤후2:1)

교회 목사의 임무: 교회 보호, 순결한 교리 선포와 가르침

교회의 여러 과제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 전전한 교리, 양 떼 보호, 양육(행20:28-32)

딤후1:13-14

딤후2:2

딤후2:15

딤후2:24-25

딤후3:14-17

딤후4:1-2

이것이 사랑침례교회가 하는 일, 앞으로 할 일

이것이 교회의 근본 사명

초대 교회의 리더십

교회는 유기체이면서도 조직체이다. 그래서 반드시 리더십이 필요하다.

초대 교회: 감독(목사, 장로), 대개 복수 체제, 감독은 직무, 장로는 권위 등

리더십은 말씀과 기도 사역

1. 의사 결정

그리스도 앞에서 바르게 해야 한다.

장로교회는 가르치는 장로(목사)와 의사 결정을 하는 치리 장로들을 둔다(딤후5:17).

카톨릭/프로테스탄트 체제

칼빈의 제네바 통치, 신약시대를 구약으로 잘못 이해하고 유대인들의 장로 제도 도입

그러나 성경은 이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행20).

성경은 감독과 목사의 직무만 규정한다(딤후3).

침례교회에는 성경대로 감독(목사)과 집사만 있다.

목사는 집사회와 의사를 결정한다. 만장일치냐, 아니냐 등은 교회의 법에 따라 다르다.

2. 진리 수호

디도서에 나타난 감독(장로)의 직무(딤후1:9-11)

3. 권징

전전한 교리를 거스르는 성도들을 권징해야 한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등(딤후2:17-18)

이단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므로 속히 처리해야 한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징계(딤후1:19-20)

간음한 자 징계(고전5:3-5)

결론

교회는 유기체이면서도 조직체이다. 그래서 반드시 리더십이 필요하다.

말씀 사역이 핵심, 이를 위해 잘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 필요

교회 운영: 집사회, 지역 인도자, 교장, 찬양대 인도자, 교사들 필요

주님의 교회 계획 1군: 교회 리더십의 필요

성경말씀: 출18:1-27(2013년 12월 15일 설교)

교회는 평생 숙제, 교회는 '유기체'(organism)이고 또 '조직체'(organization)이다.

유기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생명체를 말하며 조직체란 땅의 지역 교회를 말한다(즉 조직이다).

이 둘 중 하나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긴다.

유기체: 생명체이므로 그냥 두면 저절로 교회가 굴러간다. 형제 교회, 소규모 교회, 가정 교회

조직체: 조직만 잘하면 세상의 기업들처럼 굴러간다. 현 시대 많은 교회, 특히 대형교회(프랜차이즈)

어느 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BC 1491년 1월 14일 유월절(지금의 4월경) 이집트 탈출, 남자 장정만 60만(민1:46), 603,550명

탈출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시험: 파라오 군대, 먹을 것(만나), 마실 것(반석의 물), 원수 아말렉

여기까지는 유기체로서 일함, 장로들 외에 특별 조직이 없음, 장로는 부족들의 대표(출3:16; 12:21)

이제 탈출 뒤 두 달이 조금 못 되었을 때에 유기체의 리더십 문제가 생긴

1-7: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 미디안의 제사장(1절), 이집트 탈출 뒤 시내 산에 이르기 전에 모세는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보내어 소식을 전하게 하였고 장인이 이들과 같이 옴

8-12: 이드로의 하나님 찬양,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창14), 이드로, 옴은 이방인,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를 구원하신다.

13-16: 모세의 문제, 아내와 아이들과 장인이 왔으면 1주일 정도 쉬어야 하는데 일이 산적해서 13절에

보니 모세는 바로 '다음 날'에도(13) 일에 몰두하기 시작함

문제의 원인: 모세가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재판함, 거의 끝이 없는 일

목사나 교회 리더들이 이 점을 직시하고 일에 걸려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세는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법규와 법들을 알려줌(16), 그러나 본인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함,

즉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먹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없음, 경건함과 거룩함 추구 불가

17-18: 이드로의 조언, 내가 하는 일이 좋지 않다(17), (1)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음

(2) 너와 백성이 둘 다 지칠 것이다, (3) 이 일이 너무 무거워 너 홀로 할 수 없다. (4) 즉 목사에게만

와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영혼의 자유, 말을 듣지 않는다.

19-23: 조언, 지도자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로 구분

1. 너는 하나님 쪽을 향해 백성의 사정들을 가져가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을 가르쳐라

(19-20). 즉 기도와 말씀 선포(행6:4)

2. 백성의 치리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자들을 선정하라(21). 10, 50, 100, 1000명의 치리자,

쉬운 것들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어려운 것만 네게 가져오게 하라. 그러면 일이 쉬우리라(22절).

3. 드디어 조직체로서의 회중이 등장하기 시작함, 유기체만으로는 문제를 풀지 못함

이드로의 경영 기법이 들어옴

4. 조직체 운영에 대한 이드로의 조언은 합당한가, 하지 않은가?

이드로가 교리와 율법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그것은 월권행위, 수용 불가

그러나 이드로는 원로로서 인생의 긴 경륜 속에서 터득한 상식 수준의 원리를 제시함

교회 안에서도 이것들을 구분해야 한다. 인생의 지혜, SNS 선교 등

신약의 교회

AD 30년경 오순절 날(대략 6월 초 즈음)에 교회가 형성됨, 유기체

3,000명(행2:41), 5,000명(행4:4), 순식간에 거의 2만 명 정도의 사이즈가 됨

드디어 유기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함, 행4:32 초기 유대인 교회, 주님의 재림 사모, 모든 것을 팔아서

바침, 관리가 허술함,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6장에 보면 문제가 회중 가운데 크게 생김(6:1), 파당이 생기고 배급 문제가 생김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의 처방(6:2-4): 유기체만으로는 교회 경영이 안 된다. 이제 조직체를 꾸려야 한다. 우리가 빵 배급이나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선한 자들을 찾아와라.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

신약과 구약의 동일한 원리

처음에 교회가 작을 때에는 목사가 홀로 유기체의 교회를 관리하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 사이즈가 넘어가면 유기체만으로는(저절로 굴러가는) 즉 법과 조직 없이 교회 유지 불가능 성도들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기에 반드시 법과 질서가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느슨하게 유기체 교회로 운영함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즉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 지역 인도자, 섬김 부서, 교사 등으로 나누어서 조직체로서의 최소 틀을 갖추었다. 이것을 두고 교회와 목사가 변했다고 하면 안 된다.

조직은 성도들을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들의 일을 미워하면 혼동이 생김(창11장의 바벨탑 사건),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 바울의 확증(고전14:33, 40)

누가 리더가 되는가?

구약: 능력 있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출18:21)

신약: 정직하다는 평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자(행6:3)

1.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자, 즉 교리와 말씀에 정통하고 타인의 눈에 그렇게 비쳐야 한다. 그러므로 리더들은 성경 말씀에 능통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며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2. 인간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 안에서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 “목사는 반드시 사회생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한다. 부목사, 사역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No!
3. 모든 리더는 목사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한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같은 방향으로 배를 이끌려고 해야 한다. 조언과 충언은 가능하지만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문제가 생긴다. 왜 그런가? 완벽한 목사는 없기 때문이다. 설교, 전도, 저술, 심방, 상담, 음악 등을 모두 잘하는 목사는 이 세상에 없다.
4. 탐욕이 없는 자: 자리다툼 안 하는 자, 과거의 경력, 학력, 재산 등을 내세우면 이 교회에서는 영원히 리더가 되지 못한다. 리더는 사람이 따라야 한다. 목사가 시켜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막10:45를 기억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기면 리더가 된다. 오래 다녔다고 되지 않는다.
5. 나는 편파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 능력 있는 자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을 세운다.
6. 목사도 사람인지라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틀이 맞으면 다른 것이 부족해도 함께해야 한다. 모두 모세가 되면 배가 산으로 향한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동일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리더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된다. ‘성격이 급하다. 잔정이 없다.’ 무엇으로 목사를 판단하는가? 그의 과거와 그가 이런 일을 보라. 킹제임스 성경, 교회 확장, 확고히 자리 잡음, 겸손하기만 하면 된다.

조직체 구성 이후의 변화

조직체로서 회중이 구성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출20장에서 십계명을 받는다. 하나의 질서 있는 민족으로 태어나 메시아를 배출하게 됨

신약 교회: 조직체가 구성된 이후에 비로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됨(행13:1-2), 교회로서의 역할 감당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2012년 5월부터 유튜브 시작, 첫 달 조회수 2,100건, 하루 6000건
미디어 선교 헌금 매해 1억 원, 열심히 전도/선교, 주일 아침 예배 참석 550명, 아이들 교육
예배당 부지 구입, 교회의 장래는 청년들과 청장년들에게 달려 있다. 여기서 리더들이 나와야 교회 건축
가능,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내게는 큰 상관이 없다. 다만 이 세대를 섬겨야 하는 차원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 일을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려면 좋은 리더들이 나와야 한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다. 리더를 존중하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민11, 백성의 불평, 모세의 한탄(15), 주님의 처방, 장로 70명을 데리고 오면 그들이 짐 감당(17)

그들에게도 영을 나누어 주겠다. 드디어 이들도 대언을 함(25), 엘닷과 메닷도 진영에서 대언함, 여호수아의 말(28), 모세의 대답(29),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바른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

주님의 교회 계획 13: 목사의 자격과 의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신약 시대 교회: 유기체와 조직체, 성장하면서 조직 필요

신약교회는 질서를 위해 지도력이 필요하며(딤후1:5) 목사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시의 진보: 신약 시대 리더십은 목회 서신인 딤후전 3장에 기록됨, 감독과 집사: 직무 수행자
감독, 목사, 장로

목사: 감독, 장로, 목사는 같은 직무 수행자(Office)에 대한 용어이다(딤후1:5; 7; 벰전5:1-2; 4; 행20:17; 28)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벰전5:1-2)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행20:28)

1. 장로: 사람 자체(Elder), 감독: 그 사람의 직무(Office)
2. 신약 교회: 구체적으로는 이방인들의 교회에는 장로 따로, 감독(목사) 따로 있지 않다. 동일 직무 수행자, 16세기 제네바에서 칼빈은 신약 교회를 구약의 이스라엘로 잘못 이해하고 신정 정치를 퍼려 하였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구약의 장로회 시스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다른 이들은 시무 장로
3. 신약 성경의 감독은 다 지역 교회 감독: 로마의 주교 등이 아니다. 폴리캡 서머나 교회 감독
4. 직무(Office) 설명(딤후전3): 누군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부여한 권위가 허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Officer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직무, 경찰 서장의 직무
5. 감독(Episcopos, 감독하는 자, 직무의 의무), 장로(Presbuteros, 치리하는 자, 직무의 위엄), 목사(Poimen, 목자, 직무의 목적)

목사

목사에 해당하는 그리스말은 '포이멘'이며 이것은 18군데에서 모두 목자로 번역되었다(마9:36; 막6:34; 눅2:8; 요10:11; 히13:20; 벰전2:25 등).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목사 즉 지역 교회의 목자라는 선물을 주셨다(엡4:11). 목사는 감독으로 교회를 감독하며(빌1:1) 장로로 위엄 있게 치리하고(딤후1:5) 목자로 꼴을 먹이는 의무를 수행한다(엡4:11).

교회 역사: Bishop에서 Pastor로 바뀌는 과정

역사를 통해 감독과 장로라는 용어들이 성경적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를 쓴다. 사실 성도들에게는 감독과 장로보다 훨씬 더 좋은 호칭들이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목사는 성도들 가운데서 나온다.

목사의 목적

목적: 교회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엡4:11-16)

목사의 필수조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면(call) 교회가 임명하고(ordain)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 직책으로 구분하신다(행13:1-4).

부르심의 특징: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원함이 있어도 부르심이 없으면 목사가 될 수 없다. 부르심이 없는 목사는 불행하다.

부르심 이후에(혹은 부르심과 함께) 준비가 필요하다: 사김을 통해서(바울과 바나바), 목회자를 통해서(바울과 디모데)

목사의 자격

자격: 딤후전3:1-7, 딤후1:6-9

외적 자격: 한 아내의 남편(딤후전3:2), 자기 집과 자녀들(3:4-5), 초신자는 안 됨(6), 좋은 평판(7)
내적 자격: 깨어 있고 맑은 정신 소유, 손님 접대(희생), 더러운 이익이나 탐욕 추구 No!
다 지키는 사람은 없다. 본인은 노력해야 하고 교회는 그런 사람을 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회의 흥망성쇠는 목사에게 달렸다.

목사의 의무

1. 먹이는 것(목자): 양떼를 말씀으로 먹여야 한다(행20:28).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 상고와 설교와 가르치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할 수 있다. 엡4:11은 pastor and teacher를 하나로 묶고 있다. 우리말 목사도 목자요 선생님을 가리킨다(딤후3:2).
 - a.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딤후5:17).
 - b. 가르치는 재능(딤후2:2)
 - c. 읽고 권면하고 교리로 가르치는 재능(딤후4:13)
 - d.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딤후1:9).
 - e. 지적 능력과 언변의 능력이 없으면 힘들다.
 - f. 인격이 동반되지 않으면 힘들다.
2. 지도(인도)하는 것(장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한다(먼저 본을 보임으로, 감독함으로 뱀전5:2-3 참조). 목사는 반드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양들이 이끌고 나가는 교회는 성경에 없다. 목사는 독재자가 아니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인도자이다.
3. 경계하고 보호한다(감독): 목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양떼를 보호해야 한다. 목사는 자신, 교회, 종교적인 이리떼들, 이단들, 잘못된 자들을 늘 주의 깊게 살피고 또 병든 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4. 이것들 외에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교회 성도들의 의무

교회는 목사의 지도력에 순복하고(히13:17)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 주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살전5:13).

질문

1. 목사는 복수여야 하는가?(행14:23; 행20:17; 약5:14), 부목사, 조력 목사(누구를 섬기는가? 여호수아, 디모테), 머리가 두세 개가 되면 어떤 조직이든 망한다.
2. 목사는 신학교를 나와야 하는가?
3. 목사는 은사가 아닌가?
4. 목사를 형제라고 불러야만 하는가? 목사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 성직체계, 목양자, 호칭 문제, 사모님, 다른 교회 목사님
5. 목사는 직업을 갖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목사의 사례비는 어느 정도(나하고 비기지 말라), 목사의 교회 시무, 보험, 연금 등
6. 목사를 그만 두면 어떻게 되는가? Office(직무), 관례

좋은 교회의 태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심판 날 다시 만날 목사와 성도(고후1:13-14, 24)

목사는 성도들의 요청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하고 특히 어려운 형제들의 사정을 도와야 한다.

주님의 교회 계획 14: 목사는 설교자다

1. 설교라야만 한다.

사람의 변화는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롬10:17). 그러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교회의 흥망성쇠는 목사에 달려있다. 특히 목사의 설교에 달려있다. 존 맥아더 목사님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에서 몇 장을 강해하려 한다.

0. 마틴 로이드 존스(1899-1981)

1. 26세에 영국 왕립의학협회에서 의학박사학위
2. 칼빈주의 감리교 배경, 회중교회
3. 1925년부터 2년 동안 목사의 소명에 대해 회의하다가 1927년부터 11년 반 동안 남웨일즈 교회 목사, 정규 신학을 하지 않은 목사
4. 1939년부터 1961년까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캠벨 모르간과 공동 사역하다가 모르간이 1943년에 은퇴한 뒤 홀로 목회함(총 22년). 그 이후에도 웨스트민스터에서 8년 정도 더 있음(총30년), 1968년 웨스트민스터에서 은퇴, 설교자로 40년 이상 섬김, 삶 자체가 설교자의 삶
5. <설교와 설교자>는 1969년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6주 동안 강의한 내용

I. 왜 설교에 대해 강의하는가?

- A. 설교는 존스의 평생 사역(40년 이상), 부족함, 실수도 많아서 연구와 토론을 많이 함.
- B. 강의 수락 이유
 1. 설교는 사람의 소명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
 2. 오늘날 기독교회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진정한 설교이다.
 3. 세상이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이 설교이다.
 4. 설교는 원래 preaching이다. 선포와 성경 공부의 차이

II. 설교는 정말로 필요한가?

- A. 이런 질문 자체가 교회의 타락과 위험한 상태 반영
- B. 설교 강연에 대한 오해: 방법론, 수단, 방식, 기교 등 No!
- C.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전제와 배경과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

III. 교회에 대한 불신

- A. 설교는 둘째 치고 현 시대에는 교회 무용론이 판을 친다.
- B. 교회 자체가 기독교의 방해물이다(전통주의, 형식주의, 생명력 상실).
- C. 이게 과연 교회인가 하는 데가 수두룩함.

IV. 설교에 반발하는 이유, 설교의 위치와 능력이 쇠락한 이유?

- A. 일반적인 이유: 볼드윈 주의(스탠리 볼드윈)
 1. 로이드 조지, 윈스턴 처칠 같은 유명한 웅변가 수상 뒤를 이음
 2. 전직 수상들을 이기려면 웅변이 별것 아니고 “나는 평범하고 솔직한 사람이다”를 강조함.
 3. 즉 웅변가에 대한 불신 조작. “과거에는 스스로 글을 읽지 못해서 웅변가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다 글을, 책을 읽는다. 라디오와 TV가 있다.”
 4. 그 결과 웅변과 비슷한 설교도 필요 없게 되었다.
 5. 역사의 확실한 사실: 사람을 움직인 영웅들은 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 a. 페리클레스: BC 450년경,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군인. 평의회 · 민중재판소 · 민회에 실권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아테네의 최성기였다.
 - b. 데모스테네스: BC 350년경, 그리스 최고의 웅변가, 정치가
 - c. 링컨, 케네디, 레이건, 클린턴, 오바마, 이승만
- B. 교회의 내적인 이유들
 1. 성경의 권위 추락, 진리에 대한 신뢰 추락, 성경 무오성 경멸

- a. 설교의 위대함은 주제의 위대함에서 나온다.
 - b. 그런데 인본주의에 의해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니 당연히 설교의 권위가 떨어진다.
 - c. 이제 설교는 윤리, 도덕 이야기, 사회 정치 이야기로 전락함
2. 위대한 강단꾼들의 등장
- a. 설교자가 아니라 강단꾼: 헨리 워드 비처, 오순절 은사운동의 각종 쇼 꾀들
 - b. 쇼맨십: 원맨쇼, 코미디, 각종 호황 찬란한 형식 등장(베니 힌, 코미디 목사 등)
 - c. 설교가 오락의 한 형태로 전락함
 - d. 특히 복음(전도) 설교들이 내용 없이 형식과 연출에만 신경 씀, 한국의 경우 부흥회
3. 설교문에 대한 오해: 설교문(sermon)과 설교(선포) 개념의 오해
- a. 설교문이 수필의 형태를 띠게 됨: 문학적 수사 기법 사용
 - b. 진리보다는 화려함, 매끄러움, 비유, 인용에 의지함.
 - c. 설교 대신 '강연' 혹은 '강의'라고 함: <기도에 관한 조용한 이야기>, <능력에 대한 조용한 이야기>
 - d. 설교 대신 예배 형식이 강조됨: 예전의 강조, 집례, 각종 프로그램의 증가
 - (1) 노래 증가
 - (2) 교독문 증가
 - (3) 헌금 시간 증가
 - (4) 성가대 시간 증가
 - (5) 목사의 촛불 행렬
 - (6) 영화와 연극
 - (7) 찬양 인도자 시간 증대, 찬양 목사 등장
 - (8) 간증: 유명 인사 초청, 이것은 오락이다.
 - (9) 상담 사역(개인 사역)의 중점
 - (10) 교회의 변화: 강단이 옆으로 밀려남
4.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의 주장
- a. 기존의 모든 전통과 결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을 만들려면 그들과 삶을 공유해야 한다.
 - b. 출석 인원의 감소는 교회와 설교 때문이다.
 - c. 교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
 - d. 정치 개입, 사회 문제 해결, 박애 사업, 외국에도 선교사 대신 그곳 사람들과 섞여 살며 정치, 사회 문제 참여

V. 교회와 목회자의 임무: 하나님의 말씀 선포

A. 주 예수님의 사역: 말씀 선포(주 사역)와 기적과 병 고침(부수 사역)

- 1. 주 사역: 마4장의 광야 시험 이후, 17절: 하나님의 왕국의 경륜을 선포하기 시작함
 - a. 나는 세상의 빛(요8:12)
 -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라.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마6:33).
 -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마22:21)
 - b. 열두 사도 선택(마10:6-8)
 - c. 공관복음의 광야 시험(눅4장)
 - 마귀가 이 세상 왕국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제안 거부(눅4:5-6)
 - d. 요한복음의 5병2어 기적(요6:15), 왕을 삼으려 함. 도망함
 - e. 유크 나누는 이야기(눅12:14), 나는 재판자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 f.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
- g. 마28:19-20의 대위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한다.
- h.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 선포와 가르침, 이것을 사람들이 변한다.
메시아 표적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

B. 부활 이후 사도들의 사역

- a. 행1: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8절). 증인은 말하는 사람
- b. 행2: 오순절 날 성령 충만 이후 곧바로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이 누구신가?”
- c. 행3: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 설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올 것이다. 회개하라.
- d. 행4:12: 하늘 아래, 반대자들의 주장: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행4:20).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행4:31)
- e. 행6: 그리스파 유대인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목사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일은 합당치 않다(2).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4). 이로써 교회와 목사의 영원한 우선순위가 결정됨
- f. 행8: 스테반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선포함(4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선포함(5절)
- g.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3:15), 사회복지센터, 놀이터가 아니다.
- h. 내게서 들은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말하고 가르치라(딤후2:2)
- i. 말씀 선포(딤후4:1-2)

C. 교회사의 증거: 설교가 쇠퇴하면 교회가 위축된다(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1. 종교 개혁과 부흥의 원동력: 설교의 갱신, 설교가 살아나면 위대한 운동이 일어남
 - a. 초대 교회
 - b. 16세기 종교 개혁: 루터, 칼빈, 낙스, 래티머
 - c. 17세기: 에드워즈, 윗필드, 웨슬리
 - d. 18세기: 설교의 시대, 이후 스펠전, 무디

VI. 총요약: “설교라야만 한다.” 설교는 교회와 목사의 주된 임무이다.

- A. 성경과 교회사의 증언
- B.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전9:16-17).
- C. 사랑침례교회의 발전은 선포와 가르침에 있다. 이것을 믿어야 교회가 바르게 성장한다.

주님의 교회 계획 15: 설교자의 소명과 점검과 준비
설교자: 존스(6장)

설교문과 설교행위가 결합된 것이 설교이다.

I.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하는가?

A. 모든 그리스도인이 설교를 하는 것(평신도 설교)은 아니다.

1. 평신도 설교에 대한 고찰
2. 지난 100년 동안 누구라도 설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짐
3. 심지어 여자도 설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섬(딤후 3장에 따라 목사와 집사 불가)
4. 존스에 의하면 이것은 감리교, 형제교회 등의 비신학적 영향 때문이다(형제교회 등에서는 성령님이 임하는 대로 아무나 일어나 설교함).
5. 존스는 이것을 '비성경적인 설교관'으로 보고 있고 나도 이에 동의한다.

B. 평신도 설교

1.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전임 사역자를 둘 수 없는 경우, 우리 교회(미래 교회)
2. 성경은 여가를 이용해 설교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3. D. L. 무디, 찰스 피니 등의 영향
4.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하는 것'(벧전3:15)과 설교는 다르다.
5. 즉 주님을 믿는 이유를 대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 다르다.
6. 성경은 교회의 목사(감독 혹은 장로)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여 줌(딤후3:2).

C. 평신도 설교의 문제

1. 소명(calling)의 결여: 설교는 부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가능하면 전 시간을 들여 해야 하는 일이다.
2. 설교는 부업이 아니다.
3. 설교자는 반드시 소명 즉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4. 설교자는 스스로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존경 받는다. 책 읽을 시간이 많다 등등
5. 대언자의 일 즉 설교는 사람이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D.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 정신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있어야 한다.
2. 이것이 다른 이들에 의해 확인되거나 강화가 된다.
3. 이러면서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한다.
4. 가르치거나 알려주어야겠다는 열망이 생긴다.

E. 압박감이란 무엇인가?

1. 설교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는 마음
2. 스펀전의 말: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하라. 목회를 하지 않고도 살만 하다면 목회를 하지 말라."
3. 존스의 경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다고 자신에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버리게 된다.

F. 동시에 "내가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눌러야 한다.

1. 고후2:14-16
2. 안 하려고 애를 쓴다.
3.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전2:3).
4. 위대한 설교자일수록 설교하기에 주저하였다(이사야, 예레미야).
5. 압박감과 두려움 없이 설교자로 서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II. 교회의 소명 점검

- A. 설교자가 보내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교회가 개입한다.
1. 교회는 딤편3장과 딤편1장에 있는 대로 설교자를 검증해야 한다.
 2. 교회의 일꾼은 행6장에서처럼 교회가 원칙을 가지고 세워야 한다.
 3. 그러나 교회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영국 감리교회의 캠벨 모간 배척
 4. 본인은 소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장애물을 제시하여 판단하고 그의 성품이나 지성이나 언변을 평가해야 한다.
 5. 스펠전의 사례: 어떤 사람의 설교 요청, 성령님은 질서 있게 일하신다.
 6. 한 사람의 야망이 그를 목사로 만들려고 한다. 이를 말리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7. 가장 중요한 요소: 보통 사람 이상의 영성이 있는가?(성령 충만한가? 행6:3).
 8.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 성경 지식, 교리, 가정 등
 9. 인격 문제;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딤편2:6-8; 딤편후2:24).
- B. 이런 것들이 만족된 후에 능력을 보아야 한다.
1. 신학의 이해
 2. 말씀의 이해
 3. 언변의 능력: 설교자는 말하는 사람이다. 언변의 능력이 없으면 설교자가 될 수 없다.
 4. 존스의 경험: 유능한 과학자가 찾아와서 설교자가 되겠다고 함. 그런데 말을 못한다. 반대했지만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됨. 그 후 7년 동안 세 군데 교회를 전전하다가 과학 분야로 돌아감.
 5. 교회의 잘못도 있다: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면 목사가 되라고 목사나 교회가 이야기한다.
 6. 존스의 경험: 한 젊은이가 정신과 의사를 찾음. 그 이유: “너무 혼란스럽다.” 그는 빵 집에서 일하며 좋은 목소리로 교회를 섬겼다. 교회를 방문한 전도자가 목회를 하라고 권면함. 그래서 목사 훈련을 받기 위해 한 대학에 들어간 지 2주 되었다. “도무지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 “정신과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제 제 정신이 들었다.”
- C. 개인과 교회가 한 사람의 소명을 점검할 수 있다.

III.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

- A. 회심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1. 이것이 없으면 설교가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2. 회중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기 문제를 풀려고 한다.
 3. 그러나 설교자는 회중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강단에 서야 한다.
 4. 따라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서 직장 생활, 사업 등을 하는 것이 좋다.
 5.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신학교, 신대원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 B. 지적 훈련의 필요성: 가능하면 대학에서 예술이든 과학이든 일반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1.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추론하고 말하는 것 중요
 2. 국어를 잘해야 한다.
 3. 존스의 경우 신학을 하지 않고 의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 따라서 그는 신학대학이나 신대원 다니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 C. 이런 훈련 뒤 성경과 성경 메시지에 대한 특별 훈련이 필요하다. 확고한 조직 신학,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해 및 가르침
- D. 원어는 정확성을 기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도움이나 가치가 없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원어를 읽고 강조하는 것은 자기의 특권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원어 사전은 불신자들에게 의해 저술되었으므로 뜻이 왜곡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리스어 '하플로테스'(haplotes)의 번역 용례

	구절	번역 예
1	고후9:11	Bountifulness(풍부함)
2	고후9:13	Liberal(너그러운)
3	고후8:2	Liberality(너그러움)
4	롬12:8, 고후1:12	Simplicity(단순함)
5	엡6:5; 골3:22	Singleness(단일함)

5번 용례: 종들이,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in singleness of heart)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엡6:5). 4번이 맞다고 주장함

E. 교회사 공부가 중요하다(정수영 목사님의 교회사).

1. 이단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선량하며 양심적인 사람들에게서 이단이 생겨난다. 조직 신학의 부재, 어느 특정 구절로 주요 교리를 만들. 안상홍 증인회, 신천지

2. 부흥의 역사를 알게 된다.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리, 조지 윗필드, D. L. 무디 등의 전기

F. 설교학: 마지막에 두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설교집, 예화집, 설교 구성법 등은 참조할 수 있지만 언제나 설교자 다음에 두어야 한다.

IV. 결론: 설교는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다.

A. 설교자는 태어나지 가르쳐서 되지 않는다.

B. 설교에 관한 책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개선될 수는 있어도 그것들이 설교자를 만들지는 못한다.

C. 존스는 설교 코칭 등에 대해 반대한다.

D. 그러나 우리는 설교 코칭이 설교자를 만들지는 못해도 설교자의 부족한 여러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E. 특히 이를 위해서는 설교자의 아내가 설교자의 부족한 점을 잘 지적해 주어야 한다.

F. 젊은 설교자는 노련한 설교자의 설교를 자주 들어야 한다.

G. 나의 경우 Warren Wiersbe의 설교를 듣는다. Sermonaudio.com

H. 주석서의 경우에도 Warren Wiersbe의 The Bible Exposition commentary, Preaching The Word Commentary 등을 참조한다.

I. 좋은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영어의 경우 PC Study Bible, Word Search, 국내에서는 미션의 Deluxe 바이블

V. 최종 결론:

A. 하나님을 향한 사랑

B. 영혼을 향한 사랑

C. 진리에 대한 지식

D. 성령님의 강한 역사

E. 이 외의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다.

주님의 교회 계획 16: 목사는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가?

설교자: 존스(8장), 메시지의 성격

회중의 변화는 성령 충만한 설교로 이루어진다. 말씀에 대한 확신

목사는 설교자다: 소명이 있어야 한다. 가르쳐서 되지 않는다. 하나님, 영혼, 진리 사랑, 성령님의 충만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회중석이 강단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I. 그럼에도 설교자는 회중석을 평가하여 참작해서 설교해야 한다.

A. 바울의 고린도 회중 평가(고전3:1), 바울의 히브리 회중 평가(히5:12)

1. 교사는 가장 먼저 청중이나 제자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2. 젊을 때는 특히 더 그렇다: 청중을 자기 수준으로 보지 말라.
3. 청교도들의 예, 3시간 설교
4. 런던 교회 여성도들의 예: 연세든 분들, 지성인이 와서 삼위일체 설명, 거의 의미 없음
5. 어린아이에게는 젓, 어른에게는 단단한 음식

II. 강단의 오환

A.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다. 치명적인 실수

1. 존스의 체험: 본인은 수년 동안 교회만 다녔지 성도가 아니었다. 회개, 중생 설교를 못 들음
2. 정식 회원이 되려는 사람들과의 면담: 시골에서 런던으로 옮.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존스의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3.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
4. 존스의 9주간 캐나다 터론토 경험: 그 교회의 유력한 자매, 오전은 성도 대상 성화 설교, 저녁은 불신자 대상 구원 설교, 그러자 저녁에 오겠다고 함. 9주 내내 그리함. 그녀는 실제 성도가 아니었음.
5. 청중 가운데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는 죄인 취급하는 설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례들이 있다.
6. 존스의 체험: 30년 교인, 한 여인 일반 설교, 편안한 설교만을 원하고 가슴을 찌르는 설교는 거부하다가 떠남
7. 존스의 체험: 한 편지, 복음주의 단체의 지도자, 구원 받은 신자가 복음 설교를 듣고 은혜받은 일이 가능함을 느끼고 감사함.
8.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머리로는 이해하나 성령님의 능력에 잡혀 가슴이 변하지 않는다.
9. 그러므로 지적 가르침에만 동의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많은 교인들의 문제
10. 참 신자는 성화 설교든 구원 설교든 언제나 말씀의 능력을 느낀다. 구원받은 뒤에 구원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들어도 자신의 무가치함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
11. 전도(구원) 설교를 들을 때 아무 감동이 없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12. 바른 성도라면 심지어 “내가 그리스인일까?”하는 느낌에 잠시 사로잡힐 수도 있다.
13. 그러므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가르침과 양육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분들 조심
14. 웨일스 교회의 부흥 이야기: 처음에는 정식 교인과 일반 교인, 청중으로 나뉘. 1859년 전까지는 정식 교인 심사가 대단히 까다로움, 그런데 부흥의 시기에 성령님의 역사 일어나면서 정식 교인의 자녀는 유아세례를 통해 자동으로 교인이 됨(천주교). 그러면서 복음 설교가 중단됨.
15. 1859년 이후 세대는 교회에서 복음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함.
16.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험, 청교도들은 주의 만찬과 세례를 중요시하였다.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규례들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정식 교인의 아들딸들이 중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정식 교인이 됨, 에드워즈 No! 30년 목회지 사임(1750년)

17.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한다. 성화와 교육 설교만 하면 머리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100% 구원 설교 No!
18. 이것은 설교자와 회중이 둘 다 잘못된 것이므로 적당한 주기로 반드시 복음 설교를 해야 한다.
19. 또한 모든 성도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라고 강하게 권면해야 한다.

III. 목회의 영광

A. 강의와 달리 예배 중 설교 시간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1. 성도들은 행3:19의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한다. 죄들의 제거
2. 성도들은 시84편의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한다. 주의 집에 가는 것(3-4절)

B. 설교 시간의 축소 요구

1. 11시 예배, 12시 폐회, 심지어 모든 절차를 시간 순으로 적은 주보 발행, 설교는 짧게
2. 연극, 영화, 축구, 야구는 오래하는 것을 좋아 한다.
3. 설교는 무조건 짧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4. 존 허튼 박사의 예: 설교하러 가서 본문을 펼치자마자 잠 잘 준비하는 사람이 생김
5. 많은 이들이 예배 의무만 마치고 빨리 가려고 교회에 온다.
6. 간절히 예배드리고자 하지 않는 사람, 설교를 듣기 원치 않는 사람의 문제: 구원받지 못했거나 교만하다.
7. 이것은 초대교회(행2:42)와 배치됨. 날마다 모이니 그 결과 교회가 늘어남(2:46-47).
8. 베드로의 권면(벧전2:2),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죽었든지 병이 났든지 둘 중 하나이다.
9. 신약성경의 성도들: 말씀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자들
10. 사도들은 예배에 오라고 호소할 필요가 없었다. 가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
11. 종교 개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루터, 칼빈, 웨슬리, 윌펠드 등, 매일 여러 차례 설교했다.
12.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생긴다.
13. 성도들을 향한 최소의 권면: 숫자라도 채워라.
14. 불신자가 교회를 찾았을 때 두 종류의 회중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15. 이 모든 것의 결론: 강단에 큰 권위가 있어야 한다.

IV. 어떻게 권위를 찾을 수 있을까?

A. 잘못된 방법

1. 옥스퍼드 운동자들의 예: 설교자에게 특별 가운을 입혀 제사장으로 만들(뉴먼 추기경). 각종 성례, 예배 형식, 영국 성공회에서 천주교로 넘어간 자들, 한국 목사들의 로만 칼러
2. 비감독교회: 강단의 권위는 학식이다.
3. 그러나 강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이다. 설교자의 지식과 문화는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만 가치가 있지 그 자체가 권능은 아니다.
4. 그러므로 설교자의 권능은 성령 충만이다.

B. 강단의 권위를 부정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이들에 대한 답변

1. 설교자는 재능이 뛰어나서 강단에 선 것이 아니고 소명(calling) 때문에 선다.
2. 교회가 소명을 확인해 주고 목회자로 불렀다.
3. 회중이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도 목사는 그 점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C. 예배당 공간

1. 좋은 소리 전달을 위한 마이크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
2. 인터넷 배포를 위해서는 좋은 영상, 음성 장비가 필요하다.
3. 강단을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중앙에 위치시켜야 한다.
4. 발판 조절대 필요 등,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라.”

주님의 교회 계획 17: 집사의 자격과 직무

교회는 유기체이자 조직체: 유기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생명체, 조직체란 땅의 지역 교회
이 둘 중 하나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긴다. 어느 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위해 교회에도 리더십을 주셨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직무 수행자(Officer): 딤펈 3장, 감독과 집사

감독과 장로와 목사는 동일한 직무 수행자

1. 장로: 사람 자체(Elder), 감독: 그 사람의 직무(Office), 3. 목사: 포이멘, 목사

목사는 감독으로 교회를 감독하며(빌1:1) 장로로 위엄 있게 치리하고 목자로서 꼴을 먹인다.

오늘은 집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집사: 원어는 '디아코노스'(diakonos, 스트롱 번호 1249)이며 신약성경에 30회 나오고 'minister', 'serve', 'servant'로 번역되었다(마20:26; 마23:11, 롬16:1 등).

동사 '디아코네오'(스트롱 번호 1247)은 신약성경에 37회(마4:11; 마20:28; 행6:2 등).

예수님은 목사 장(벧전5:4)이며 동시에 집사 장이다(마20:28).

조직체의 직무 수행자들 출현

구약 시대 이스라엘, 이집트 탈출 이후 조직체로 변하면서 두 달이 못 되어 문제 발생

모세 혼자서 안 된다(출18장): 이드로의 조언, 백성의 처리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자들을 선정하라(21).

10, 50, 100, 1000명의 처리자, 쉬운 것들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어려운 것만 내게 가져오게 하라. 그러면 일이 쉬우리라(22절).

신약 교회

섬김 직무 수행자(집사) 선출의 배경, 행6:1-7 설명

AD 30년경 오순절 날(대략 6월 초 쯤)에 교회가 형성됨, 유기체

3,000명(행2:41), 5,000명(행4:4), 순식간에 거의 2만 명 정도의 사이즈가 됨

드디어 유기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함, 행4:32 초기 유대인 교회, 주님의 재림 사모, 모든 것을 팔아서 바침, 관리가 허술함,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6장에 보면 회중 가운데 문제가 크게 생김(6:1), 파당이 생기고 배급 문제가 생김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의 처방(6:2-4): 유기체만으로는 교회 경영이 안 된다. 이제 조직체를 꾸려야 한다. 우리가 빵 배급이나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선한 자들을 찾아와라.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

여기 나오는 7명은 집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3-4절을 보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7명은 성도들의 여러 필요

그런데 이 중 빌립과 스테반은 영적으로도 뛰어나서 복음도 잘 전하였다.

그 뒤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장로에서 감독으로, 또 섬김 직무 수행자는 집사로 정착되었다.

그 결과 25여 년이 지난 뒤 바울이 죽기 전에 목회 서신에서 자격과 직무가 딤펈3장에 명시됨

집사의 정의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를 보면 한 마디로 집사는 교회의 종이다. 섬기는 자

집사의 역할

목사는 교회의 leader이며 집사는 servant이다. 목사는 영적인 일을 위해 - 교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위해 - 수고하고 집사는 주로 그 외의 다른 일을 위해 수고한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거꾸로 하고 있다. 집사는 목사를 control 할 수 없다.

집사의 자격

딤펈3:8-13(10가지 영적 자질)

목사와 마찬가지로 이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은 없다.

- (1) 성정적이어야 한다(교리, 실행, 헌금, 출석 등).
- (2) 신실해야 한다. 순수한 양심을 가진 자(9), 재정 문제 등(딤펴전1:19)
- (3)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9) =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경험이나 사람의 힘만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의 특성: 사람의 머리로 계산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 (4) 긍정적이어야 한다(나는 못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 (5) 늘 부르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교회 근처에 살며 금요 모임 등에 나와야 한다.
- (6) 아내와 더불어 가정생활이 원만해야 하며 아내의 자격 역시 집사 선출에 중요하다(11절).
- (7)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행11:24): 바나바

집사의 선출

사도행전 6장 1-7절은 분명하게 집사라고 하지 않지만 앞뒤를 미루어 보건대 일곱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보인다.

집사는 국회의원같이 민중의 대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사람이다.

- (1) 목사의 필요가 있어야 선출한다.
- (2) 영적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출한다.
- (3) 목사의 주관 하에 교회가 선출한다(투표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
- (4) 임명은 목사가 한다(3절).
- (5) 집사는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딤펴전3:10).

집사에 대한 질문

- (1) 집사는 몇 명이여야 하는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한다.
- (2) 집사는 종신직인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한다.
- (3) 집사는 그만 둘 수 있는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한다.
- (4) 여자 집사는 가능한가?(롬16:1) 종의 의미, 직무 수행자가 아니다.
성경적으로는 불가능,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

우리 교회의 집사

- (1) 종신직이 아니라 집사는 매해 직무 수행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2) 집사 그룹에는 나이가 든 분들과 새로 임명된 분들이 있다. 4:1 비율
두 그룹 모두 종신직이 아니다.
다만 연장자들은 오랫동안 하다가 바뀌고 새로 임명된 분들은 1-2년 한 뒤 바꾼다(기회를 준다).
- (3) 목사는 매해 말에 차기 년도의 집사 후보들을 선정하여 나이 든 그분의 집사 형제님들에게 묻고 임명한다.
- (4)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명 이내에서 정한다. 이들은 행정 집사
- (5) 우리 교회에는 지역 인도자들이 있다. 이들은 집사는 아니지만 지역 리더로서 집사의 역할
- (6) 교회 건축과 같이 중대한 결정에는 모두 참석한다.
- (7) 성도들의 권징 등에도 참여한다.

집사에 대한 결론

집사는 감독(딤펴전3:1)과 달리 본인이 사모한다고 되는 직분이 아니다.

섬기는 직분이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려는 자세(부부가)

주님의 교회 계획 1부: 예배란 무엇인가? ㄷ

예배

예배(경배)

예배, 경배 같은 말이다.

왜 우리 교회에 오는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나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믿음의 중심

예배 없이 살 수 있나? 없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결과: 하나님을 모르면 참된 예배 불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표현: 창조자, 심판자

하나님께 대한 찬미와 봉사

21세기 예배의 위기, 전 세계적인 추세, 주 5일제, 교회들 타협 오전 7시 예배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참석해 줌

저녁(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경시(무시)

개인적인 예배 경시(무시): 경건 서적 등

10-20년 뒤 우리 자녀들의 앞날? (록 음악, 열린 예배, 천주교식)

잘못된 예배 개념

일반 교회

너무 예배가 많다(새벽, 주일, 수, 금요일).

기도회, 재정 회의, 각종 모임의 감초 격 예배

축하 예배 난무

취임 예배, 학위 취득, 개업, 졸업, 입학, 회갑, 돌

신약 용어 '프로스쿠네오'는 '꿇어 엎드림'을 뜻함.

국내 독립 교회(침례 교회, 형제 교회 등)

너무 예배가 없다.

예배 본질 오해 경향

예배 경시 풍조, '교제 중심의 예배(?)'

예배의 정의

국어사전

경례하고 절함; 신이나 부처 앞에 경배하는 의식; 종교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의식이 있음;

신을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

Worship

Worth <가치, 존경> + Ship <어떤 상황 등을 유발시키다>

가치가 있는 대상을 인정한다.

독일어 '고테스디엔스트'(Gottesdienst)

Service to God

하나님을 섬김, 주인과 종

성경의 예배 개념

구약성경

다라쉬: 'seek', 하나님을 구하다, 찾다(스4:2), 보물 찾기 이상으로

아바드: 'serve', 주를 섬기다, 일하다(삼하15:8), 공식 예배

사가드: 'worship', 모든 육체가 경배한다. 납작 엎드리다(사66:23)

신약성경

리투르게오: 'minister', 주를 섬긴다(행13:2), 봉사, 리더지(예전)

세보마이: 'worship', 내게 경배한다(마15:9), 존경하다

라트레이아: 'service', 합당한 섬김(롬12:1), 지위가 높은 자를 섬김

트레스케이아: 'worship', 종교적 예배, 신앙심(골2:18), 찬사 숭배

프로스쿠네오: 'worship', 무릎을 꿇어 엎드리다, 59회

정의: 최상의 존재인 주님께 꿇어 엎드리려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섬기는 것
떨리는 것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예배 요약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드린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간절한 소원의 표출

우리 자신, 우리 마음, 우리의 소유물, 기도, 간구를 드린다.

이렇게 먼저 드린 이후에 주님의 약속과 위로와 책망과 권고 등을 받고 새로운 각오로 세상을 향해 나간다.

예배 순서, 맨 뒤 하나님의 말씀, 헌금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 행위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중요한 첫째 이유는 성경이 예배에 대해 매우 자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번 거듭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강조한다.

십계명 첫째 명령 강조(출20장)

하나님의 표준, 원리, 지침을 명령, 법규, 법령, 법률 및 신조의 형태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2-6절까지의 제1계명이다. 첫째 명령

출애굽기 20장 2-5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라.(구원의 하나님)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예배의 하나님)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순서 중요

구원(1회) 다음에 예배(끝이 없음)

성도로 삼은 목적: 출19:5-6(신7:6-11), 제사장 민족, 계: 성도는 왕과 제사장(계1:6)

성막의 설립(출25장)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처소

예배의 장소, 절차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모든 수치, 기준, 설비를 논하는 데 7장(출25-31장, 총243절)을 할애함.

은 우주를 비롯한 삼라만상의 창조를 묘사하는 데는 불과 창세기 1장(31절)이 할애됨.

성막: 뜰과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언약궤, 금홍의 자리(속죄소)

금홍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출25:21-22)

성막: 예배의 중심

성막 주위의 진영(민1:52-2:2)

40년 광야 방랑생활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이동함(출40:3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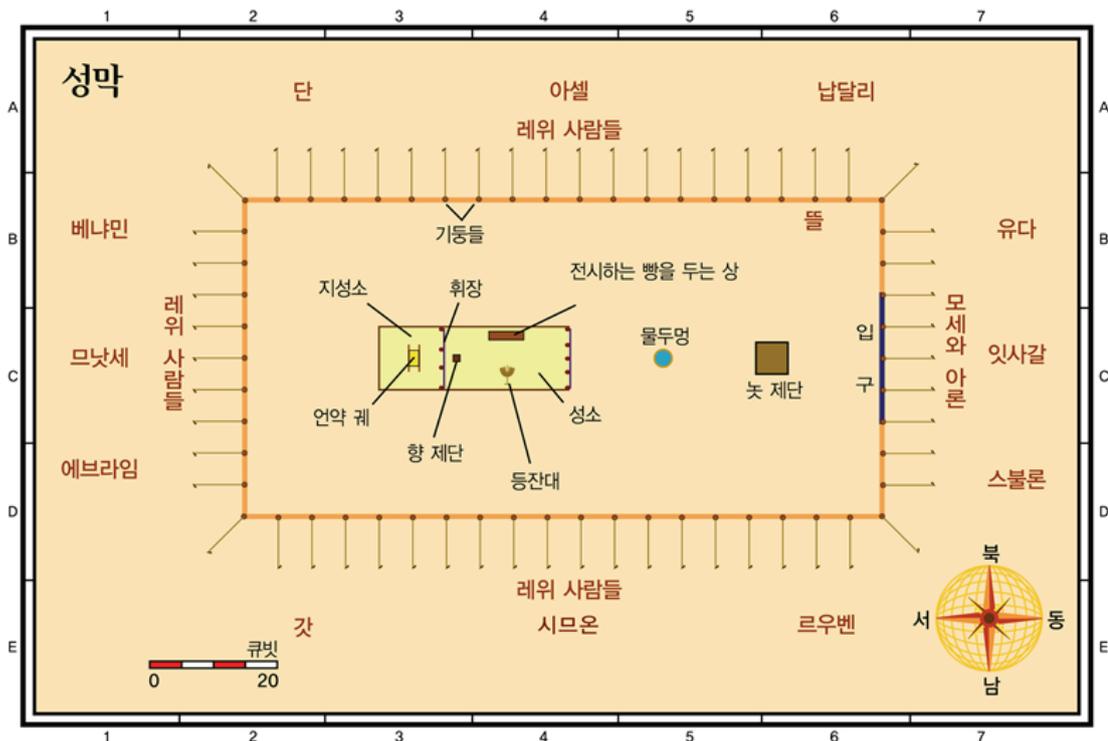
성막 주변: 제사장들, 레위인들, 열두 지파

제사장들: 예배

레위인들: 성막 봉사

열두 지파: 예배 참여

성막: 구약 초기 유대인 예배의 중심



시편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시29:1-2):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이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시95:6).

스랍의 예(사6:1-2)

스랍: 여섯 날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낚

네 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반응(얼굴과 발 가림)

두 개: 봉사(낚)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다.”

은 종일 쉬지 않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기존 성경: 영적 예배

Reasonable service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참되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1장 구속의 은혜(18-19, 23-25절)

2장 2-3절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본 자들’, ‘갓난아이들’

이제 구원 받은 자의 의무를 보여 주는 2장 5절이 나온다(9절 참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인 산 돌들로 만든 집에서 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로서 영적인 희생 예물을 드려야 한다.

예배는 혼을 쏟는 것이다.

영생은 예배에 의해 정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혹은 누구를 숭배(경배, 예배)한다.

행 17: 아테네 사람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꿊어 엮드린다.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돈, 명예, 돌, 새, 쥐, 태양, 달 등.

예배의 대상이 매우 중요하다.

예배는 인생의 핵심이다.

예배는 생활의 첨가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시간과 영원과 천국이 예배의 대상과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주님의 교회 계획 14: 예배란 무엇인가? ㄹ, 참 예배와 헛 예배

예배

정의: 최상의 존재인 주님께 흠여 엎드려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섬기는 것
예배에 의해 영생이 정해진다.

잘못된 예배 1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

세상의 물질적인 신(욥31:24-28), 돈, 금, 새, 돌, 나무 등(롬1:22-23)

하늘의 초자연적인 신들(신명기 4:14-19), 일월성신

잘못된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형상으로, 물질적인 표현으로, 우상으로, 또는 자신의 사고의 결과로 전락시키는 것
심지어 십자가도 없다. 나무를 생각하면 안 된다(출20:2-4), 천주교의 크루시픽스, 수치이다.

성경에 기록되 예수님

자기 방식대로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나답과 아비후(레10:1-2), 아론의 두 아들, 이상한 불, 술에 취해

사울(삼상13:8-14절)

웃사(삼하6:1-9; 대상13:9-14; 해결책 15:12-15), 수레에 싣고 가다 궤가 쓰러지려고 함(3, 6)

동기가 좋아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원래는 메고 가야 한다. 합당한 규례대로 해야 한다.

수레는 블레셋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방식

여로보암

바리새인들(마15:1-9; 23:23-28), 법대로 하려는 사람들,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함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름, 7절 등

그릇된 태도로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사1:11-20; 호6:4-7; 암5:21-27; 말1:6-14; 3:13-15; 막7:6

헛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숫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른즉 수소나 어린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뜻을 밟을 뿐이리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사1:11-13).

혹시 교회나 목사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헛된 열심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롬10:1-3).

반드시 옳은 것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한다.

주일성수, 십일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구원 전의 사도 바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10:4).

바른 예배자(시24:3-6)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이것이 그분을 찾는 자들의 세대요, 오 아꿈아, 네 얼굴을 찾는 자들의 세대로다. 셀라(시24:3-6).

깨끗한 마음, 올바른 영(시51:10)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시51:17)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히12:28-29).

사랑에 앞서 두려움과 공의 하나님: 사람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받으실 만하게 그분께 예배함으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은혜롭게 반응해야 한다.

바르지 못한 예배자: 배은망덕한 자

공적 예배의 목적

주일의 공적 예배는 나머지 육일 동안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일을 고무시킨다.

주일이 주의 첫 날이다.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의인들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백성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 바로 이곳에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 받고 세상 가운데서 나눔과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일에 대해 격려와 도전을 받는다. 교회의 공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격려와 약속을 혼 안에 가진 채 '하나님의 복의 통로 혹은 대사'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히13:16).

그리고 다시 모임에 돌아올 때 지속적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충만하게 찬양하게 된다.

예배의 장애물 1

죄에 대한 진솔한 회개가 없는 마음

사무엘기하 12장: 밧세바와 간음하여 태어난 아이가 죽은 후의 다윗의 모습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라(20절).

다윗은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

회개의 예배란 징벌의 와중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죄를 고백하며 “나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뜻한다.

예배의 장애물 2

비통한 환경 문제들, 욥2:9의 아내의 말

욥을 보면서 '받아들임의 예배'를 배울 수 있다(욥기1:20-22).

'받아들임의 예배'는 우리의 상황 - 지위, 경력, 노력, 배우자, 자녀 - 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사랑하는 자를 잃는 것, 자녀를 잃는 것, 직업을 잃는 것, 질병의 고통 등)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배의 장애물 3

희생과 헌신이 없는 것

성경에서 경배(worship)가 처음 나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창22:4-5).

그는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취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예배로 보고 있다.

대가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 물 길으러 오른 여인, 영원히 멈추지 않는 물

구원 초청, 죄, 회개, 예배의 순서

여자의 관심: 예배 장소(4:20)

예수님의 대답: 예배 방법(4:21-24), 장소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in spirit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 No!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한다(22).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지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구약성경에서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여 영적인 지식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들의 예배는 진리가 없는 열광주의 예배였다.

진리가 없으면 감정으로 나타난다. 은사주의 교회들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부를 경전으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였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깃들어 있지 않았다.

영과 진리 안에서 균형이 잡혀야 한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1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는 한 사건을 기대하며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이다.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이 예배 행위를 통해 기대하여야 할 한 사건은 무엇인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대하7:1-2; 11-12; 행2:47; 4:29-31).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와야 한다.

김남준 목사,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예배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과 감화와 교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결과이어야 한다.

사람마다 문제가 달라도 동일한 말씀으로 문제 해결이 된다. 심방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예배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 대하여 찬송과 헌신을 되찾는 것이다(창22:14; 28:16-22; 출15:1; 19:7-8 등).

주님의 교회 계획 근무: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와 교회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예배

현대 교회 예배의 문제

기복 신앙, 번영신학, 회개를 찾기 어려움

현대 예배의 문제: 죄의 참회가 없다. 오히려 죄 조장, 10만원 내면 100만원, 매일 교회 와라
딤후6:5,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득이다.

구약시대 짐승의 희생물을 드리는 예배자, 짐승을 드리면 사람 보기에는 드렸으나 하나님께는 아니다.

죽은 예배, 글자의 예배, 형식의 예배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 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예배가 바르게 드러진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이유: 스킷조프레니아, 인지 부조화

믿음과 인격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교회와 예배

교회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누리고 있는가?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그 지체들에게 누리게 하고 있는가?

한 교회의 예배는 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넘을 수 없다: 구약식 예배, 감정 예배, 율법 예배

교회 개혁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예배의 문제이다.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교회는 이 세상의 단체와는 다른 신적인 기관이 된다.

세상 방식은 절대 안 된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 부름 받은 기관이다.

교회는 예배의 깊이만큼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명인

선교, 구제 등 프로그램으로 몰아세우지 않는다. 예배가 제대로 되면 자연히 된다.

오늘날 교회의 세속주의는 예배의 실패에 기인한다.: 록음악, 입신 등 No!

교회와 예배

교회는 사회 개혁/변화의 매개체가 아니며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영적 교통이 있고 성령님과 사귀어 있는 곳이다.

사회 복음 No!

영적 교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진리의 참 빛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도 예배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던 사람들이 참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예배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만 바뀐다.

따라서 예배가 영혼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다.

인격의 변화

목사 혼자 할 수 없다.

예배 속의 성령님의 역사 1

예배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이다.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결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임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고 성별된 시간과 공간을 상실하였다.

예배: 하나님의 속죄 행위를 통해 정결케 된 자신의 백성을 다시금 거룩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예배는 또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기쁨을 필요로 하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다.

예배 속의 성령님의 역사 2

성령님은

죄와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해 증언한다.

죄인의 마음에 일하심으로 변화가 생기게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 세상을 향해 주신 사명을 생각나게 하신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과 관계있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신다.

죄를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불신자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시고 냉담한 사람의 마음에 영적 열심의 불을 지핀다.

무수한 예배 속에서 도무지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감격하며 찬송하게 만든다.

예배 속의 성령님의 역사 3

성령님이 오셔서 예배자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면 그의 영혼이 변화를 경험하며 그때에 그 사람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뀌고 예배드리는 방식이 변화되며 삶이 변한다.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늘 듣던 진리에 대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갖게 만들어 준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불분명하게 받아들이던 지식들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회중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자신의 영적 상태와 삶에 적용되게 된다.

예배 속의 성령님의 역사 4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님과 설교자, 설교자와 회중, 회중과 예배 순서 사이를 지배해야 한다.

설교자에게 변화가 생긴다(능력).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설교의 지평이 변한다.

설교에서 자유함이 생긴다.

예배자가 감동하는 일이 생긴다.

교회의 부흥이 생긴다.

성령 충만은 예배와 부흥의 필수 사항이다.

예배와 정서 1

정서(Affection): 영으로 드린 예배의 결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 감화 감동이 있다.

영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 속에는 반드시 정서적 요소가 있다.

정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후회, 탄원, 열정, 두려움, 근심, 신비, 경외, 사랑, 아픔, 절망, 신뢰, 고난, 목마름 같은 정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고후7:11).

성령님에 의한 거룩한 감화가 있으면 반드시 정서가 깃든다.

잘못된 감정주의의 위험을 경계한 나머지 신앙에서 아예 감정적인 요소를 천시하는 것은 죄악이다. 영적인 은혜는 반드시 거룩한 정서를 동반한다(에드워즈).

예배와 정서 2

예배자들에게 인위적으로 정서적인 자극을 주거나 충격을 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항상 경건한 정서의 갱신이 뒤따른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후회, 탄원, 열정, 두려움, 근심, 신비, 경외, 사랑, 아픔, 절망, 신뢰, 고난, 목마름 같은 정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서의 갱신이 예배의 결과로 나타난다.

예배의 이러한 효과는 바로 예배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결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린다.

기억하고(과거) 사모한다(미래): 하나님과 나를 알아야 한다.

10년 전보다 지금 더 많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예배는 결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부활 사건만을 기념하는 것일 수는 없다(천주교, 지방 교회, 형제회 등의 만찬 예배의 문제).

예배의 정의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응답이며 거룩하신 분의 나타나심에 대한 반응이다. 예배 가운데서 경외와 두려움과 기이함을 체험하는 것이 정상적이기는 하지만 요점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창조적으로 그분과 연관 지으며 죄를 고백하고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가운데 찬양과 경배로 그분의 임재에 반응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거룩하신 분, 위대하시고, 엄위로우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권세와 선하심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배하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을 경험한다(Arie C. Leder).

주님의 교회 계획 리: 예배란 무엇인가? 마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

지난 주: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 죄의 고백, 회개, 정서의 변화

예배에서 십자가의 중심성

성령님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만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깨닫게 해 주는 시간은 많지 않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의 눈을 돌린다.
이처럼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 주는 은혜의 근거가 무엇인가?
늘 울어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근거는 무엇인가?
아무 선한 것이 없는 누추한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은 무엇인가?

예배 핵심: 십자가의 구속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한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영적 깊이는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식하고 느끼는 정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불가능하다.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부흥된 예배에서 나온다.

한 시대의 각성을 알리는 효시도 항상 십자가와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 감격한 사람들에 의해 부흥이 이루어졌다.

예배 핵심: 그리스도

예배자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

예배를 올바른 방식으로 드린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사건에 대한 회상이 있고 감격이 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채 신앙 생활하는 이유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복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약 예배(대신 속죄 그림 31, 89)

시청각 교육

레위기 1장, 양에게 죄 전가, 죄인이 직접 죽인다.

죽임, 조각냄, 제단에 던짐, 불에 탐, 지옥, 매해 몇 차례 경험, 여러 차례 반복

신약의 어린양, 단번 속죄, 피, 죽음, 지옥의 형벌까지 감당함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제사장, 성전, 양이 필요 없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진리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진리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오는 진리가 있다.

이 진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나온다.
예배는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는 장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설교이다.

회당 예배: 설교 중심

출애굽 이후: 성막, 성전 중심의 희생 제사 예배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회당 예배

기독교 이전의 회당 예배에서도 성경을 읽고 읽은 바를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일이 중심이었다.
기독교 예배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순서가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이 형제들
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행13:14-15)

예배와 이해

예배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엄위하심을 이해하는 행동이다.

영으로: 열(열정)

진리로: 빛(이해, 지식)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요17:3).

설교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다리이다.

다리가 부실하면 건너지 못한다(혹은 힘이 든다).

다리의 종착지가 바르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간다.

말씀 쇠퇴의 징조

형식/예전 중심

음악 중심

드라마 중심

조명/시설 중심(무대)

교제 중심

예배 시간 고정

설교: 예배의 핵심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특징

정직하게 선포되는 성경 진리

예배자들의 겸손한 반응

그 위에 내리시는 성령의 축복

성도들의 의지적인 약속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느8:8-9)

예배와 설교 비유

거룩한 산을 오르는 사람

준비하고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무장한 채 다시 내려온다.

따라서 설교가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설교자가 없다면 바르게 예배드리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설교자는 이 일의 중대함을 알고 매진해야 한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누구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해도 된다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주장이다.

예배자의 태도: 백스터 1

첫째, 개인적으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할 것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분명하고 확고한 가르침 아래서 살아갈 것
셋째, 부주의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지 말 것
넷째, 설교 중 쓸 데 없는 생각이나 졸음으로 말씀을 놓치지 말 것
다섯째, 설교에서 다루는 교리의 윤곽을 기억하거나 요지를 적을 것
여섯째, 설교 중 영혼에게 중요하거나 관심사에 대해 답이 되는 내용들은 기록할 것
일곱째, 집에서 기독교 교리를 공부할 것
여덟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할 것
아홉째, 설교 내용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물어볼 것
열째, 알기 원하는 교리들을 다룬 좋은 책들을 읽을 것
열한째, 지혜와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부지런히 기도할 것
열두째, 알게 된 내용을 의식적으로 실천할 것

예배의 결과 1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시50:23).
삶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레10:3)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게 된다.
우리의 죄성 인식
정결하게 되려는 불타는 열망(시24:3-4).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시139:23-24)

예배의 결과 2

주님께 예배하고자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세워지고 강해지며 변화된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예배는 거룩한 기대와 함께 시작되고 거룩한 기대로 끝을 맺는다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행2:47).
그리고 그들은 온 도시를 완전히 그들의 교리로 가득 차게 했다(행5:28)

예배의 결과 3

불신자들이 구원 받는다.
예배하는 공동체의 심오한 증거는 어떤 단독적인 설교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전14:23-25).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이 깨끗하게 되며 교회의 품성이 높아지고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공 예배 때 확인할 것들

진지하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봄으로써 갈급한 마음으로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믿는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가?
삶의 모든 죄를 처리하고 깨끗하게 나아가는가?
설교자: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약4:8)

주님의 교회 계획 2: 교회가 망하는 징조와 이유

성도의 가장 큰 고민: 바르게 예배드리고 아이들 교육하고 교제하는 성경적 교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모여 있다. <주님의 교회 계획> 시리즈 21번,

교회를 지으면서 요즘 우리 교회의 앞날을 생각해 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러면서 죽기 전에 교회에 충고를 주어야 할 것 같아 <교회가 망하는 징조와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네팔에서 선교하는 데이빗 클라우드 선교사, 40년 이상 성경적 교회를 하려고 노력했고 이름 있는 교회들의 설립, 발전 그리고 퇴보를 눈으로 보았다. 한때 미국에서는 가장 큰 주일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들의 다수가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였다. 그런데 이런 명성이 다 사라지고 있다.

근본주의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1. 미시간 주 폰타악, 임마누엘 침례교회, Tom Malone, 5000명, 80대 버스 운영, Midwestern Baptist College, 이제는 사라졌다.
2. 테네시 주, 채타누가, Highland Park 침례교회, 유명한 테네시 템플 대학, 교회가 보수적이고 음악이 경건함, 재림 신앙, Dr. Lee Roberson 목사, 경건한 그리스도인, 옷 규제, 40년 목회, 565명의 선교사, 1980년대 말부터 변하기 시작함, 테네시 템플 음악, 소프트 록 음악, 2005년에는 교회에서 록 음악 콘서트, 2008년에 남침례교단 가입, 2012년에 교회가 사라짐, 2015년에는 테네시 템플 대학 문을 닫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전체 철학이 변하기 때문이다.

즉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면 교회는 망한다.

1. 미지근함(거룩함이 없고 세상이 지배)
2. 성경이 약하다. 3. 기도 부족, 4. 유해한 경고와 책망
5.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함, 6. 대중을 따라간다. 7. 실용주의, 8. 중요한 이슈들을 무시한다.
9. 세상과의 구분이 사라짐, 10. 제자 삼는 사역이 없다. 11. 음악이 무너진다. 12. 쉽게 구원을 말하고 확인시켜 준다.

결국 세상과 혼합된 철학이 좋은 교회를 망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10가지 포인트>,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7가지 지혜> 등의 설교
제자 삼는 교회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제자 삼는 교회를 해야 한다.

제자 삼는 다고 하니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안 된다.

제자는 선생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가장 흔하고도 중요한 말, 제자

믿는 자(believer) 2번(행5:14; 딤후4:12), 그리스도인 3번(행11:16; 26:28; 벴전4:16); 성도 62회, 형제 135회, 그리스도의 제자 268회

그러므로 신약 교회의 성도는 제자여야 한다. 제자와 성도는 같은 말

예수님의 말씀(요8:31-32),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참으로 제자이다.

제자의 특징: 1.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2. 사랑한다. 3. 안에 거한다. 4. 열정이 있다.

요8:47; 10:27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돌아갔다(요6:66). 돌아간 이유(64).

주님의 제자들(요6:66-69)

구원과 제자도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바르게 구원받으면 제자가 되려는 열망이 생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제자가 되기 위해 따르게 된다(엡2:8-10).

역사의 교훈: “교회가 훈련을 중시하고 원칙을 중시하면 성장한다.”

“좋은 교회는 지금도 좋고 다가올 세대를 위해 준비하여 그 교회도 좋게 하는 교회여야 한다.”

특히 1990년부터 인터넷이 시작되면 교회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2007년 이후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교회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경건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좋지 않은 애플 음악, 영화, 동영상, 설교에 쉽게 접한다.

이런에도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히10:25).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신약성경의 교회

성경의 교회에서 멀어지면서 결국 망하는 교회의 특징

1. 등록 교인은 많은데 매주 출석하는 교인은 3-40퍼센트, 1997년 미국 남침례교회, 1600만명, 32.8%가 정기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한다. 12.3%가 오전 예배 말고 교회의 다른 행사에 참석한다. 즉 유럽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교 문화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함(부활절, 성탄절 참석), 하일랜드파크 교회, 등록 교인 5만, 주일 오전 약 4,000명, 교회 회원이라고 해서 참 제자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구원이 구원답지 않으면 교회가 망한다.
2. 대다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매일 성경을 읽는 교인들이 드물다. 읽는 경우도 의무감(죄책감) 때문에, 열정이 없다. 데이빗 클라우드: 바이블 지식 테스트, 짧은 테스트 60개, 긴 테스트 260개, 곧 번역해서 나누려고 한다.
3. 설교와 강해 시간에 성도들의 태도가 부실하다. 일차적인 책임: 목사, 그런데 우리처럼 설교와 강해가 풍성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억하기 위해 메모
4.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이 없다.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 자체가 없다. 우리 교회의 변화: 청년, 창장년의 열정, 아이들 교육 열정
5. 교회 정기 기도회에 열심히 없다. 멀리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야 한다. 집사, 지역 인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6. 교회 회원 대다수가 음악, 영화, 음악 비디오, 스포츠, 게임, 세상 잡지, 음식, 옷 등에만 관심이 있다. 무엇을 보면 아는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그들의 소셜 미디어를 보면 알 수 있다.
7. 교회 성도들 간의 대화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마12:34; 잠15:14). 우리의 모임에서 대화는 어떤가? 교회와 주님 중심인가? 디즈니랜드, 크루즈 여행, 프로 야구, 축구, 사냥, 여행, 진실한 성도들의 대화(말3:16)
8. 음악이 무너진다. 9. 교회가 단순함을 버리고 각종 프로그램으로 교인들 혹사

결론

계시록의 일곱 교회(2-3장),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모두 지역 교회: 다 사라지고 없다(엡2:5). 등잔대를 치운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됨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511쪽

좋은 교회의 특징

1. 좋은 교회는 구원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며 시작된다.
2. 좋은 교회는 교회 회원권을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다.
3. 좋은 교회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있다. 4. 좋은 교회는 설교자를 훈련/양육한다.
5. 좋은 교회는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6.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다.
7. 좋은 교회는 기도에 강하다. 8. 좋은 교회는 책망하는 교회이다.
9. 좋은 교회는 지도자와 사역자에 대한 규율이 있는 교회이다.
10. 좋은 교회는 적절히 교육하는 교회이다. 11. 좋은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다.
12. 좋은 교회는 성경적 분리를 실천하는 교회이다. 13. 좋은 교회는 음악에 주의를 기울인다.
14. 좋은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교회이다. 15. 좋은 교회는 경건한 가정들을 세운다.
16. 좋은 교회는 청년들을 제자 삼는다. 17. 좋은 교회는 세계 선교 비전을 갖는다.
18.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첫 사랑을 갖는다.

주님의 교회 계획 23: 구원받은 사람들의 9가지 증거-좋은 교회의 특징 11

데이빗 클라우드,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511쪽

지난 시간, 교회가 망하는 징조와 이유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즉 예수님을 스승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따르는 사람

제자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인 교회, 좋은 교회이다. 좋은 교회의 18가지 특징

오늘은 첫 번째 특징

1. 좋은 교회는 구원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며 시작된다.

기독교의 근본 원리 중 최고의 근본 원리는 구원이다. 제자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될 수 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No!

문제: 크리스천 가정/교회에서 자란 아이들도 구원을 모른다. 여러 행사, 의식, 문답(바르게 대답) 등 초자연적인 구원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다.

미국의 크리스천 스쿨에 다닌 한 사람의 간증: 50명의 학생들, 90% 이상이 구원 안 받음, 더 큰 문제 부모와 교회는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음: 성경 구절 암송, 교회 학교, 크리스천 스쿨, 부모 때문에 억지로, 줄고나 핸드폰,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데이빗 클라우드의 간증: 어려서부터 침례교회, 10살쯤에 믿음 고백, 전혀 변화가 없음, 부모에게 불순종, 결국 회심하기 전에는 힌두교와 뉴에이지에 빠져 삶

성경적 구원에 포커스를 두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로만 고백하는 자들(딤후1:16)

구원받은 사람들의 9가지 특징

1.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후5:17).

구원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 죽어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100% 삶에 변화가 있었다.

수가성 여인, 삭개오, 니고데모, 빌립보 간수, 사도 바울

1750년경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던 때의 특징: 침례/세례, 교회 출석, 선한 행위가 있으면 구원 그러나 대각성 운동을 통해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일이 생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확실하였다.

이 당시 회심한 사람, 노아 웨스터(1758-1843), 미국 국어 교육의 아버지, 1828년 노아 웨스터 사전
예일대, 변호사, 당대 최고의 엘리트

2차 대각성 때, 1807년에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 제일회중교회에 다니면서 대각성 체험

웨스터는 1808년 4월에 두 딸과 함께 공적으로 믿음 고백

“그의 회심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의 삶의 분수령이었다. 그 결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즉 윤리와 도덕, 정부, 교육, 사람의 존재 이유 등에서 그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졌다.

하나님 및 사람, 죄에 대한 관점의 변화, 그 결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

그의 말: “내 삶의 변두리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정중앙으로 들어오셨다. 그 결과 내게는 삶의 목적과 초점이 변하였다.”

구원받기 전의 웨스터

1. 교회에 늘 출석하는 멤버, 2. 20살 이후로는 성경의 규정대로 덕을 행하며 삶, 3.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늘 감사함, 정원에서 과일을 딸 때도 늘 감사함

4.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를 믿음, 5. 그럼에도 인간의 이성애에 맞지 않는 교리들은 의심하고 배제함,

6. 너무 열심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2차 대각성 집회가 열릴 때 처음에는 반대

회심 이후 기독교(대각성)를 반대하는 자기 처남에게 보낸 편지

“성경과 기독교 신앙, 성경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인간 통치, 역사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되었고 마음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인간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고려할 때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또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은 치명적 실수이며 이런 것은 인간 본성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나움을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사회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만에 빠져 멸망으로 향함을 알게 되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변화

2.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한다(요17:3; 딤후1:12).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다.

아바, 아버지(롬8:15; 갈4:6), 주님이라고 부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면담, 언제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 남편과 아내처럼

마7:21-23, 내가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3. 복음을 믿어야 한다(롬1:16).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전15:1-4, 성경 기록대로...

구원받으려면 정확히 복음을 알아야 한다.

1.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거짓 그리스도 배격
2.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3.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음을 믿어야 한다.
4. 그것도 성경기록대로 그리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성경 말씀의 확실성
5.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만을 믿는 것이다. 오직 그것만
6. 예수님이 묻힌 것을 믿는 것이다. 실제로 죽으셨다.
7.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4. 복음 안에 거해야 한다.

구원받았다고 하고는 곧바로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이 아니다.

클라우드의 예, 구원 고백, 결국에는 힌두교/뉴에이지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 진화론자가 될 수 없다. 동성애 지지자가 될 수 없다.

5.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벧전2:2).

요8:47,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

성경에 관심이 가야 한다. 읽고 듣고 싶은 욕망이 들어야 한다. 연구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야 한다.

6. 의를 사랑해야 한다(요일2:3-4).

구원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과거의 불순종 안에 거하면 안 된다.

여전히 옛 사람이 있다. 죄를 짓는다. 그럼에도 의와 불의를 구분하고 처절하게 의를 위해 살려고 해야 한다.

목사의 아들 데이빗 소렌슨, 5살에 구원 고백, 15년 동안 구원받았다고 함(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

20세에 구원받음, 미워하던 일을 좋아하고 좋아하던 일을 미워하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권위에 복종하는 것, 특히 아이들 부모/교사에게 순종한다.

7.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롬8:9-16)

성령님의 내주,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구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다.

8. 재림을 사모한다(딤후4:8)

이 땅이 최종 종착지가 아님을 안다. 그래서 영구한 집을 사모한다.

어려움을 당해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겨낸다. 아브라함처럼

9.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히12:6-8)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징계를 받는다. 심지어 죽는 사례도 생긴다(요일5:16-17).

클라우드의 간증, 제리라는 친구, 학교 같이 다니고 졸업한 뒤 같이 월남전 참여

클라우드 23세에 회심, 그는 불변, 클라우드의 믿음 조롱, 마약, 인디안 영매 등에 빠져 얼마 전에 죽음, 그의 부모 방문, 둘 다 교회에 신실하게나감, 어머니는 주일학교 교사, “어려서부터 교회에 갔으니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소망, ”

그런데 그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나 하나도 없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회 철학

1.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숫자를 센다. 일 년 365일 구원만, 설교도 구원, 간증도 구원
2. 회개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 강조한다.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느냐?”
그래서 빨리 영접 기도를 하고 받아들이라고 한다.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정확히 아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니고데모(요3), 수가성 여인(요4), 부자 관원(막10), 삭개오(눅19), 에티오피아 내시(행8), 루디아(행16), 빌립보 감옥의 간수(행16), 아네테 사람들(행17)
3. 구약의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는 일을 버린다. 무조건 영접 기도
4. 그러다 보니 복음 제시가 너무 빈약함, 10-15분 정도
5. 영접 기도를 시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6. 구원의 증거를 찾지도 않고 침례를 준 뒤 교회 회원이 되게 한다.
7. 대개 회개와 그 열매 무시
8. 특히 아이들이 쉽게 영접하게 함, 많은 경우 가치관의 혼란, 거짓 구원

아이들 구원

1.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딤후3:14-15). 예배 참석, 성경 읽기
2. 복음을 가르친다.
3. 회개를 가르친다. 옛 생활을 버려야 한다.
4. 압력을 넣지 말라.
5. 훈련시킨다. 예배와 성경 읽기 및 기도
6.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7.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본다.
8. 가능하면 아이들 침례는 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18살 이상, 얼마든지 믿을 수 있으나 침례는 나중에

결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좋은 교회를 하려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구원을 정확히 가르치고 강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교회 계획 24: 구원받은 사람만 회원이 되어야 한다-좋은 교회의 특징 24

데이빗 클라우드,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511쪽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즉 예수님을 스승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따르는 사람
지난 시간, 구원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9가지 특성, 인생의 지향점 전환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회원이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부터의 전통
1656년 소머셋 고백: 교회는 구원받은 증표가 명백히 드러나는 사람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회원권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오직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회원
중세 천주교 암흑시대, 유아세례 및 7성사 행위 구원, 이 일의 시작,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늘자 마귀의 작전 전환,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함, 주후 300년경 교회가 이교도들을 수용하면서
불행 발생, 313년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쏟아져 들어옴
어거스틴의 영향으로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연옥, 마리아, 천주교 세상
영국 국교회(성공회) 사제의 유아세례 기도문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이 아기를 중생하게 하시고, 양자 삼음에 따라 아버지의 아이로 받아들이시며,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기뻐하셨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회에서는 성사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예식’으로 이해하며,
누구나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사제가 어린이
에게 세례를 베푸는 유아세례를 집전한다. 어린이들은 나이가 어려서 신앙고백을 할 능력은 없지만,
세례성사를 통해 전달되는 하느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성공회에서 설명하
는 유아세례의 타당성이다. 이러한 설명에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성만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성사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성공회의 성사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

천주교 유아세례 부모의 글, 카톨릭의 7성사 중 하나인 세례성사

사람의 일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성사가 일곱 가지 있는데 그 중 가장 처음 받는 성사가 세례 성사입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가톨릭 신자가 되는데 이를 통해 교회에서 베푸는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세례성사는 죄악에 물든 과거의 우리 자신은 죽게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 하느님의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니 이를 통해 원죄를 씻어내고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수나 샤워할 때 물로 씻듯이 마음을 깨끗이 씻어 낸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아 세례 시 흰 옷을 입는 것도 새롭게 태어나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아기 아무개.

천주교, 성공회 등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뒤 특별한 문제없이 교회를 출석하면 진실한 성도로 교회의
회원이 된다.

죽을 때에 성공회 사제는 이렇게 기도한다.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의 혼을 취하시기를 기뻐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소망 속에서 우리는 그의 몸을 땅에 묻습니
다.”

클라우드의 말: 유아세례로부터 장례에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과정을 시행하면서 교회는 부패하게 된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험, 청교도들은 주의 만찬과 세례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규례들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정식 교인의 아들딸들이 중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정식 교인이 됨, 에드워즈 No!
1756년 노샘프턴 교회(23년간 목회하던 교회, 해임 찬성 230표, 반대 23표)에서 해임됨, 조나단 에드워

즈의 <심판 날 다시 만날 목사와 교인들>

그런데 현대 침례교회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아세례나 7성사 때문이 아니다.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준 뒤 회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미국 남침례교회: 회원들의 30%만 주일 오전 예배 참석, 12%만 교회 행사 참석

얼마 전에 방문하신 침례교 원로 목사님: 말만 침례교회이지 실제 침례교회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현상이 심지어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 안에도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순수한 회원권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교회 회원권의 표준(행2:41-47)

교회 회원: 구원 고백 및 침례, 타교회에서 회원권 이전

1. 확실한 구원 간증, 이를 지지하는 변화된 삶: 예루살렘 교회를 보라.

확실한 회심, 불신 유대인들 앞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구원 고백(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우리는 무죄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지만 변화된 사람을 요구한다(딤후2:19).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받을 수 없다(딤후1:16). 여전히 음행, 간음, 마약, 동성애, 강도,

우상숭배(고전5:11)

2. 성경적 침례(행2:41)

성경의 침례는 죽음, 매장, 부활을 드러내는 침수례만 인정한다.

구원받기 전의 침례는 무효하다.

비성경적인 교회에서 주는 침례 무효; 구원의 안전 보장 부인하는 오순절 교회

침례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그 뒤 침례 교육 비디오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침례를 줄 것이다. 즉 원한다고 해서 모두 주면 안 된다.

3. 신실함 성도(행2:42): 교회 출석과 재정 의무

4. 교회의 교리 동의(고전1:10)

교회 헌법, 신실하게 나오면서도 회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 교리 때문에

우리 교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성 믿음

비회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배와 행사에 참석해도 된다. 교회 사무에는 안 된다.

심한 경우 주의 만찬에도 참여시키지 않는 교회도 있다.

1년에 한 번씩 교회 헌법의 교리를 읽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교회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히13:17).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 질서, 이를 위해 교회지도자들의 치리에 순종해야 한다.

주님의 교회 계획 25: 좋은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좋은 교회의 특징 23

데이빗 클라우드,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511쪽

지난 시간, 회원권을 심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교회는 리더 이상 클 수 없다. 목사는 교회의 일을 결정하고 영적 온도를 맞춘다.

목회자의 자격(답전3, 답1)

데이빗 클라우드의 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토로한다. 그런데 목사에게 변화가 없는 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교회의 리더십: 목사, 집사, 지역 인도자, 교회학교 교장, 섬김 부서 부서장, 교사
목사

데이빗 클라우드의 말: 침례교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목사들이 상당히 많다.

약3:1, 목사에게는 큰 책임, 큰 심판, 자기 삶과 아이들 그리고 교회까지 회계 보고해야 함

1. 확실한 열망(답전3:1)

고전9:16,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열망, 스펀전의 말 “다른 것을 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으면 목사가 되지 말라.”

2. 성경의 기준: 성품, 가정생활 등

그러나 열망은 반드시 성경과 교회의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3. 능력이 있어야 한다(딤후1:9-11)

특별히 설교하고 가르치는 능력, 아무리 사람이 좋고 교리가 올바라도 안 된다.

교회를 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질 No!

교리를 방어해야 한다.

리더들을 양성해야 한다.

4.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행13:1-3). 바울과 바나바

교회가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 운영될 때, 예수님, 바울, 사도 요한 등도 배척당한 적이 있다.

5. 임명할 때 신증을 기해야 한다(답전3:10). 교회의 무슨 자리든. 일을 주면 잘할 것이다. No!

초신자는 안 된다. 쉽게 안수하지 말라(답전5:22).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그와 그의 가정이 신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6. 열매가 있는가? 선한 열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꺼리는 이유: 대형 교회 목사들의 타락,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데 빠지기 쉽다. 독립교회목사들도 예외가 아니다(동성애, 간음, 사기, 청소년 음행 비리 등).

1. 왕 노릇하는 자(디오드레베, 요삼9-11), 2. 연약한 자: 절대 터치하지 않음, 3. 먹어 삼키는 자, 4. 속된 자, 5. 경박한 자 등

7.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 늘 경건 서적을 읽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특별히 교리에 관한 한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베이비푸드만 주면 안 된다. 고기를 주어야 한다(매일 구원 이야기)

8. 그 결과 설교와 가르침이 항상 옳아야 한다.

9. 목사로서 권위를(히13:17)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 군주와 같은 권리가 아니다.

집사와 지역 인도자

우리 교회: 집사(행정), 지역 인도자(구역 섬김이)

답전3의 자격 조건, 목사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목사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 섬김: 출석, 재정, 교육, 육체적 일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기 위해 모든 예배/행사 참석, 교회 사이트

지금까지는 상가 건물, 내년부터는 명실 공히 지역 교회, 적어도 집사 부부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재정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 성도들은 당연히 이를 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함이 마땅하다.

주님의 교회 계획 26: 목사와 교사를 양성하는 교회-좋은 교회의 특징 24

데이빗 클라우드,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511쪽

지난 시간, 회원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구원의 증거), 좋은 리더들이 이끄는 교회(목사와 집사) 앱4장의 선물: 목사 겸 교사(4:11), 이들은 설교자이다.

설교자 양성은 교회가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할 사역, 오늘날 모든 곳에서 설교자의 필요가 매우 크다.

좋은 목사와 교사 없이 좋은 교회 하는 것 불가능, 목사 양성을 위해 특별한 주의 필요

1740년경, 대각성 운동, 길버트 테넨트(Gilbert Tennent), <회심하지 못한 목회자의 위험> 설교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이 음란한 세대에 너무 많이 교회로 파고들어온다. 특히 그 당시 예일, 하바드 등 학교들이 무너져서 신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해야 하는 것: 이지 빌리비즘, 미약한 수준의 신학 교육,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 등

바울의 방법

딤후2:1-2, 딤후3, 딤후1의 자격, 엡20:26-27, 목회 서신을 잘 읽고 가르쳐라.

1. 하나님의 일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강건한 자가 되라(딤후2:1)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해하는 데서, 이 깊이가 클수록 강한 자가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2.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설교자들을 준비해야 한다(2). 좋은 성품, 바른 교리, 좋은 설교

3. 훈련에는 가르침이 포함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4.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2). 고전4:2

신실함은 믿음직스럽다는 말, 하나님의 성품, 매일 해를 뜨게 하신다. 다윗, 모세, 바울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교제를 통해 신실하게 바뀌어야 한다.

a. 부지런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선한 간증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을 맡으면 내 일처럼 한다. 모임에 빠지게 되면 빠진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채워 넣는다.

b. 신실한 사람은 배우려는 사람이다. 그것도 계속해서 말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한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안 된다.

c. 신실한 사람은 배운 것을 꼭 지킨다. 교리를 바꾸지 않는다. 교리에 더하거나(믿음+행위) 교리에서 빼지 않는다(책망하는 것,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d. 작은 일에도 신실하다. 작은 것에도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큰일을 한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자기들의 일에 신실하다. 북한의 핵폭탄 과학자들, 이들 이상이 되어야 한다.

e.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자신의 것을 숨기지 않는다.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f. 회심 이후부터 곧바로 신실해야 한다. 주님의 영광 추구, 하나님의 일을 기뻐함

g. 가르치는 교사가 없어도 여전히 신실하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사람은 지위를 얻고자 하고 시기한다. 그래서 경쟁하려고 한다.

그러나 교회의 목사/교사는 그렇지 않다.

가장 좋은 예; 바나바, 나보다 바울이 낫다고 여기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옴(행11:21-26).

바울이 점점 더 커져도 개의치 않음, 하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한다(요3:30).

팀워크 목회

교회가 커지면 당연히 부목사, 교육 목사 등을 두어야 한다. 모두가 동등한 팀워크는 안 된다.

팀워크를 이룰 때 모두 목사가 될 필요는 없다. 다만 같이 의논하고 같은 것을 추구하는 목회 안디옥 교회, 바나바, 바울 등(행13:1)

이리 할 때 여러 선물이 결합되어 사역을 일으킨다.

1. 더 많은 눈: 주의 깊게 여러 각도에서 본다.

2. 더 많은 입: 여러 종류의 설교와 가르침

3. 교회가 조금 더 균형을 잡는다. 한 사람의 설교/가르침만 들으면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요즘 오후의 간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해야 함(눅10:2)

대표 기도, 개인 기도 시간에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신학원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리에 밝아야 한다. 창세기, 계시록, 마태복음, 조신 1,2, 성막, 로마서, 설교와 설교자, 예레미야, 필수 설교 40선 설교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에는 교회가 운영하는 신학원이 많다. 우리 교회 신학원도 석사 수준의 공부를 한다. 그런데 목표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잘 아는 것

주일학교 교육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유치, 유년, 초등, 중고등, 청년부 교육 과정 확고히 확립하는 일 필요, 교재 확정 가족이 함께하는 교회를 해야 한다.

입시 등 중요하지만 주일에는 교회의 앞날을 위해 교육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주님의 교회 계획 27: 훈련하고 권징하는 교회-좋은 교회의 특징 25

데이빗 클라우드,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511쪽

지난 시간, 목사와 교사를 양성하는 교회

이번에는 훈련하고 권징하는 교회

과거 그리스에서는 아이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스파르타식 교육

신약 교회는 이와 비슷하게 훈련하는 교회이다.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18-20):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곳, 실제로는 이단들이 가장 잘하고 있다.

훈련은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다: 학교, 학원(영아, 음악, 골프, 축구 등)

무언인가를 잘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들을 만들려면 좋은 훈련이 필요하다.

교회는 운동선수들을 훈련하듯 훈련해야 한다.

고전9:24-27

운동선수는 승리하기 위해 전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다.

강한 교육을 받고 순종한다. 그래야 승리한다.

딤후2:3(고난을 견디어 낸다), 엡6:10-18(전신갑주)

성도들이 귀한 보상을 받게 하려면 그들을 훈련해야 한다(딤후6:17-19).

1. 리더들과 일꾼들은 더 높은 규정 요구(딤후3; 딤후1)

2.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함 요구

3. 주님이 주신 것들을 준수해야 한다(마28:19-20).

4. 권위 순종, 5. 질서 유지, 6. 권면, 7. 좌에서 분리, 8. 세상에서 분리, 9. 이단 교리 떠남
이런 것들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은 긍정적인 교회 훈련이다.

사람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훈련, 부흥회가 되면 안 된다.

훈련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연습하는 것

훈련 중 하나는 무언가 부족한 것을 알려주어 고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책망하여 고치게 하는 분이다.

계3:19, 히12:6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를 권징이라고 한다.

권징으로서의 훈련은 사랑하는 일과 관련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거룩함,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 형제, 불신자

교회 권징의 목적

1. 순결한 교회 유지(고전5:6-8)

2. 불신자들에게 선한 간증 제공

3.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함

4. 잘못하는 성도들 교정해서 회복

5. 다른 성도들에게 경고

권징하는 자세

1. 겸손한 마음으로, 2. 편파적이지 않게, 3. 동정하는 마음으로, 4. 애통하는 자세로, 5. 확고한 교정 목적으로

교회 권징의 근거

1. 고전5:4, 마18:18-19

출회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다.

당사자와 가족 등이 교회를 비방하며 나갈 수 있다.
그럼에도 필요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권징을 해야 한다.

개인들 간의 문제

마5:23-24, 18:15-18

서로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1. 둘이 만나서 이야기함(편지, 문자, 이메일 등은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2. 피해 당사자는 2-3명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한다.
3. 안 되면 교회에 이야기한다.
4. 안 되면 출회한다. 이런 규정은 거의 모든 교회에 있다. 다만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을 뿐이다.
5. 그 이유: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보기 때문

타락, 마음을 다 쏟지 않는 문제

예배 자주 빠짐, 성경을 보지 않음, 아버지가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자가 집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런 일이 교회에 만연하면 그 교회의 영적 온도는 곧 떨어지기 시작한다.

1. 가르침과 권면, 책망으로 고쳐야 한다. 표적 설교는 안 된다.
2. 개인적인 사귄
3. 교회 사역을 맡기지 않음

질서 파괴 문제

살후 3장: 일하기 싫어하고 수다를 떨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님

과거에는 이런 성도들을 교제나 주의 만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유예 규정이 있었다.

이런 문제도 위의 방법으로 교정해 나가야 한다.

중대한 죄를 범함

고전5:11

공적인 죄, 중대한 죄(음행, 탐욕이 지나침, 우상숭배, 중상모략, 인사불성 술 취함, 마약, 강탈)

이런 죄를 그대로 두면 교회가 망가진다. 이런 경우는 출회해야 한다.

회복

출회된 성도들이 다시 오고자 하면 회개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고후7:11).

이단인 자

행20:20-21, 악한 교리, 딤후3:9-11

이단은 교리를 몰라서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른 교리를 저버리고 악한 것 추구하는 자
권리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디오드레베)

권징을 악용/남용하면 안 된다.

요삼9-11

우리 교회에도 권징 위원회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권면하고 자기를 돌아보아 고치는 것

주님의 교회 계획 28: 말씀이 강한 교회-좋은 교회의 특징 16

딤후4:1-4

데이빗 클라우드,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511쪽

지난 시간, 목사와 교사를 양성하는 교회, 훈련하고 권징하는 교회
성경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교회는 사상누각이다. 성도들이 교회 밖 세상에서 설 수 없다.
독립 교회 쇠락의 근본 원인: 말씀 교육 부실, 설교와 강해 부실
모든 교회의 중심은 성경, 교회가 곧 성경 학교여야 한다.

딤후3:15, 진리의 기둥과 터

골3:16,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흘러넘치게

모든 지혜 안에, 즉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지혜롭게 넘쳐야 한다.

1. 목사가 말씀이 충만해야 한다(딤후2:15; 딤후3:2; 4:13).

대다수 목사들이 말씀이 약하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야 한다(마13:52).

많은 목사들이 주석을 외면한다: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하며,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교사들을 주셨다. 성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므로 도움 필요
나의 경우: 장로교, 침례교 가리지 않고 좋은 것은 다 읽는다. 버릴 것은 버린다.

Wiersbe, Ruckman, MacArthur, Piper, Keller, 매튜 헨리, 재미슨 파우셋, 존 길
여러 사람을 통해 편견이 없는 주해, 아이들은 다 부모와 교사에게 의존해야 한다.

목사들 중에 신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미국 독립교회들: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지력이 약한 목사와 교사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없다.

조직 신학이 밝아야 한다. 구원과 성화, 종말론이 강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도 왜 이것이 다른 성경과 다르며 우수한지도 모르면 큰일

그러다 보니 일년 내내 구원 설교, 어떤 형제님의 말: 60세가 되어도 베이비 푸드

요즘 내가 하나님의 총체적 진리를 말하니 놀라는 분들: 너무 당연한 일인데 들어 본 적이 없음

목사들의 신학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양들이 골탕을 먹는다,

책들을 읽지 않으면 나이만 들지 변화가 없다.

바울의 요청(딤후4:13), 책들을 가져와라.

요한 웨슬레의 말: 책을 읽지 않으면 지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고 설교에 부흥이 없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발전이 있다.

조지 위필드: 매튜 헨리 주석 4차례 완독, 1주일에 평균 10편 설교

스필전: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신학교 졸업 후 1년 내에 매튜 헨리 주석을 한 번 읽으라.

매튜 헨리 주석(1662-1714): 장로교 청교도 신학, 비국교도, 킹제임스 성경, 1708-1710, 3년에

걸쳐 친구약 모든 구절, 2512쪽, 칼빈주의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배제하면 주옥 같은 묵상 주해

2. 회중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회중이 말씀을 사모해야 좋은 목사가 나온다.

젖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병에 걸린 것(벧전2:2)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적음: 매주 문자, 1년 완독, “이번에 완독했습니다!” 나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대사(고후5:20), 어떤 사역을 하든지 말씀대로 해야 하고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침례를 주고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것을 묻고 확인해야 한다.

3. 올바른 말씀 선포(딤후4:1-4)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때 제자들이 나온다.

경건한 가정들이 세워진다.

미약함이 있음에도 무난한 교회가 세워진다.

1.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 아니다. 2. 책망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3. 듣기 좋은 이야기만 No!

좋은 설교: 1.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 깊이가 있는 설교, 2. 강해 설교여야만 한다: 다른 이야기, 다른 것 나열하다가 본문은 잠시 다루는 설교 No!

1. 하나님께 회계 보고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4:1). 엄중한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쉬운 것, 어려운 것, 듣기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2.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단에 서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 말씀 선포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자기 믿음대로 선포해야 한다. 동시에 시대를 구분해서 가르쳐야 한다(딤후2:15). 이것은 조직 신학의 문제
주님의 말씀: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 수 있다(요8:31-32). 요일2:20, 27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선포자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느8:2-8).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심지어 아이들도
3.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행20:26-27). 교인들을 늘리려고 말씀에서 무언가를 삭제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다.
4. 긴급하게 해야 한다. 절박하게, 중요하게, 급하게,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심정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심정으로
5.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청중이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관심 없는 청중 앞에서 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가난한 자, 부자 모두에게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낙망할 때도, 격려가 있을 때도
6. 책망하라 Reprove, re-prove,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을 입증해야 한다. 논박하고 책망
7. 꾸짖으라. Rebuke, 잘못을 알려주고 꾸짖음, 쉽게 알아듣도록 말해야 함, 쉽지 않은 일, 용기, 현 시대에 하기 쉽지 않다. 진화론, 동성애, 이슬람, 공산주의 사회주의
현 시대는 긍정의 시대, 로버트 솔러, 조엘 오스틴 류, 포스트모던 시대에 매우 힘들다.
예수님: 헤롯을 여우로, 마르틴 루터 교황은 적그리스도
대언자들의 타협(렘23:15, 21-22)
대언자 예녹의 사역(유14-15)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외쳐야 한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
8. 권면하라. 함께 위로하라.
9. 책망이 3분의 2, 권면이 3분의 1, 실제적이어야 한다.
10.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한다. 성도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필요하다.
11. 교리로 선포해야 한다(2).
12. 선포로 배도에서 구출해 내야 한다(3-4).
말세에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참을 수 없다. 귀를 긁어 주는 교사들
그래서 진리를 벗어나 신화(꾸면 낸 이야기)로 돌아선다.

4. 강해 설교

주제 설교, 강해 설교, 다 필요하다. 그러나 언제든지 본문을 강해해야 한다.

1.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2.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 있다(앞뒤 문맥).
3. 성경의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4. 성경의 교리를 알 수 있다. 5. 성경 역사, 지리, 관습, 6. 성경 인물과 이야기

5. 여러 명의 설교자

여러 선물을 가진 자들, 교회 성도들에게 유용함

6. 개인적으로 가르치기, 7. 남성 모임, 여성 모임, 청년 모임

주님의 교회 계획 29: 기도가 강한 교회-좋은 교회의 특징 ㄱ

약5:13-18

데이빗 클라우드,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511쪽

말씀이 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오늘: 제자 삼는 교회는 기도가 강한 교회. 기도는 교회의 원동력
기도 행위는 성경에 407회(신약에만 121회)

예수님의 가르침의 강조점 중 하나(마6:5-13; 7:7-11), 예루살렘 교회의 4가지 특징 중 하나(행 2:42), 바울의 권면: 무엇보다 기도하라(딤후2:1-2), 거의 모든 서신에서 기도 언급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초청하시고 권명하시고 명령하신다.

기도는 일들을 바꾼다(약5:16-17). 모세의 기도(출32:7-14):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 하나님
의 심판 메시지

1. 기도는 병을 낫게 한다.

데이빗 클라우드의 기도 경험: 2014년 급성 췌장염, 4일 만에 급속도로 악화, 음식을 못 먹고 정맥
주사, 산소에 의존, 의사도 할 일 다함. 그러나 진전이 없음. 전 세계 여러 곳에 기도 요청, 37개국
1000명의 전화와 이메일, 교회 형제들이 기도함. 산소 레벨이 15분 만에 60에서 90으로, 다음날
퇴원, 우리 교회 김문영 형제님

2. 예수님 사역에는 마귀 들린 사람 치유 많음,

네팔에는 지금도 마귀 들린 사람이 많다. 기도를 통해 마귀가 나가는 것 확인

3. 네팔, 모택동 세력의 반란 1996-2006, 공산국가를 만들겠다. 19,000명 사망, 반란, 왕이 쫓겨남, 군대가 힘을 못 씀, 정당들이 아무 일도 못함, 그런데 모택동 세력이 민주 체제 하에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함, 그 뒤로 나라 평안함,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

4. 독립 교회들의 문제: 기도를 게을리 한다. 이런 교회는 대개 말씀에 강하다. 혹은 강하다고 생각한다.

5. 톰 레이너, 효과적인 복음적 교회들(Effective evangelistic churches, p. 77), 지난 몇 년 동안 쇠퇴하는 교회들 상담, 공통점: 회중들의 기도 모임이 없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기도,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참한다.

효과적인 기도의 요소

사람마다 강조점이 다르다. 클라우드의 관점

1. 믿음의 기도(막11:24),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요일5:14-15). 그럼에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 제자들의 문제: 믿음이 적거나 없다. 나의 경우 성경, 매일 읽고 읽는다. 지루하다. 다른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 마귀의 방해 세력, 힘들다, 그러나 끝이 올 것이다.

교회, 10년, 이제 교회 건축, 믿음을 가져야 한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무어라고 해도 이 믿음 지키고 나가야 한다. 아이들 교육, 국가의 바른 신앙 회복, 통일
클라우드의 간증: 편지, 이메일, 등에서 하고 있는 일만 언급함, 하나님께서 선하게 채워 주심
우리 교회: 외부 성도들 풀링 참여, 미디어 선교 광고, 그 이상은 안 한다.

우리 교회 모든 재정, 믿음으로 한다.

나 이후에 이 교회가 존속하려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2. 열렬히 기도해야 한다(약5:16; 롬15:30):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기도(사38:1-5)

3. 꾸준히 해야 한다(눅18:1): 낙담하기 쉽다. 단10:12-14, 그는 21일 동안 꾸준히 기도하였다(특별히 2-3, 8-9절). 여기를 보면 국가의 일에 관여하는 영들이 있다. 국가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성경의 사례를 보면 대개 큰 응답은 꾸준한 기도로 이루어졌다.

4. 금식(마17:21), 처음 네팔 선교, 여러 사람이 참여하였는데 우상들을 버리려는 사람은 없음, 힌두 신들의 저주를 주려워 함, 기도와 금식으로 변화가 생김, 특별히 개인과 국가가 심히 어려움을 당할 때, 요나의 선포,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 하나님의 용서

올해 영화 덩케르크(던커크): 1940년 초반 2차 세계 대전 중 독일 군에게 밀린 연합군들이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 근처에 있는 덩케르크라는 도시까지 밀려갔고 그 와중에 영국 원정군이 독일군에 의해 포위되었다. 34만 명, 영국군(약 20만), 프랑스+벨기에 군인들을 구출해 내는 것, 영국 해안에서 41킬로, 치욕적인 패배 철수 작전, 이런 상황에서 국력을 하나로 단합시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전쟁 기간 중 조지 6세가 머물던 버킹엄궁은 7차례나 폭격당했지만, 국왕은 런던을 떠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궁이 폭격당하는 장면과 국왕의 존재함을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국민의 단합과 결집을 호소했다. 당시의 국왕 조지6 세는 아래가 아닌 위를 바라보았다. 시편 50편 15절: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대국민 호소, “오늘 하루만은 모든 일을 멈추라, 오직 수십만 군인들의 생환과 전쟁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라!” 국왕의 호소를 접한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총력을 다해 기도를 했다. 그 결과 큰 피해 없이 철수 성공,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전쟁에서 이김

북한 핵위협, 미사일 위협: 우리도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5.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요일5:14-15),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래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수확밭의 일꾼들 보내 주소서(눅10:2), 악한 자들의 방해를 막아 주소서(롬15:31)

정치 지도자들(딤후2:1-4),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살후3:1): 미디어 선교

영적 지혜(골1:9),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기(골1:10), 하나님을 더 알기(골1:10), 믿음 생활의 힘(골 1:11), 합당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 주신다.

톰 레이너는 576개의 성장하는 교회 연구, 초점이 있는 기도, 그 초점은 복음 전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성장이 온다.

실제로 기도하기

1. 개인 기도 강화: 공기도회에 모이지 않는 이유: 개인 기도가 약하다.
성경의 개인 기도는 골방 기도이다(마6:6). 가족, 교회 리더, 친구, 민족, 불신자 어떤 식으로든 깨어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 기도 파트너와 함께: 사도 바울은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랐다.
모임의 밴드, 카톡 방 등 이용하여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
3. 부부끼리 기도하기: 가장 좋고 쉬운 기도 파트너
4. 가족 예배 모임: 나는 잘 하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잘 인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5. 기도회: 공기도, 여러 형식
네팔의 수요 기도 모임: 간중 30분, 설교 30분, 2,3,4명○으로 그룹을 나누어 30분 기도
우리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기도: 찬송(1시간), 기도(30분, 대표 기도, 개인 기도)
6. 그룹 기도: 한 사람씩 돌아가며 기도, 통성기도 No!

기도의 근거(약5:16)

의로운 자의 기도, 영적으로 뛰어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자, 내 의가 아니라 전가된 의 전제 조건: 잘못들을 고백한다. 그 뒤에 서로를 위해 기도, 잘못들을 고백하려면 취약함을 인정해야 한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도리 때 기도가 나옴. 이때에 하나님의 의 고백하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을 기회로 동정심 유발, 돈이나 도움

1. 고백은 잘못을 범한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
2. 고백은 두루뭇술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3.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파위를 드러내신다.
4. 대표적인 사례: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 인물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던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 대언,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회복, 그런데 심판이 없이는 백성이 돌아오지 않음을 알고 엘리야가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림

주님의 교회 계획 3부: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좋은 교회의 특징 1부 엡5:19

데이빗 클라우드,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511쪽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Ken Lynch, <현 세상에서 성경적인 음악의 역할>

교회에서 음악의 위치

성경에는 음악과 관련된 부분이 500군데가 넘는다. 창4:21, 계18:22

욥38:7,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의 노래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살전4:16),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시편은 전체가 찬송가이다.

엡5:19, 골3:16,신구약 성경 전체가 음악으로 가득하다.

마르틴 루터: “음악은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음악을 마귀를 도망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음악은 사람이 분노, 무례함, 천박함 등의 각종 악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내게는 음악이 신학 다음으로 중요하다.”

예배 시간에 목사의 말씀 선포 전에 성령님께서 찬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여신다.

하나가 됨을 느낀다. 감사, 기쁨이 치솟는다. 그래서 음악이 매우 중요하다.

음악의 힘

많은 사람들의 주장: 음악은 중립이다. 아무 힘이 없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릭 워렌 같은 사람들 노래 안에 적합한 기독교적인 단어들만 있으면 어떤 종류의 음악도 다 수용해야 한다. 가사와 메시지는 록 음악이든 랩 음악이든 혹은 크리스천 메탈이나 다른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이 전달될 수 있다. 즉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합당한 말들만 있으면 그 음악은 수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고 따라서 그것을 위해 사용된 음악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음악은 예배를 고상하게, 경건하게 만드는 힘도 없고 예배를 훼손하는 힘도 없다. 음악은 가치중립 상태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좋은 가사가 더해지기만 한다면 어떤 음악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거짓말이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록 음악을 들으면 몸을 흔들고 심지어 실신까지 하는가?

록 음악 하는 사람들은 음악의 힘을 알기에 어떻게든 음악이 중립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음악의 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좋은 치과 병원은 안정을 주기 위해 편안한 배경음악을 틀어 놓는다,

고급 레스토랑의 소유주들 역시 고객들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며 기분을 좋게 하는 음악을 선정하는 데 큰 신경을 쓴다.

쇼핑센터의 소유주들 역시 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이 편안히 쇼핑할 수 있도록

좋은 음악을 선정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그리해야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들도 음악 (보통 매우 시끄러운 음악)을 사용하여 팬들이 경기에 흥분하도록 만들고 이로써 열광적이고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야구 게임에서 왈츠풍의 음악이나 자장가와 같은 느린 음악을 틀지 않는다!

어머니가 아이를 재울 때 록 음악을 틀겠는가?

장례식장을 가 보라. 그곳에서 배경음악으로 연주하기에 적합한 음악이 있고 장례식장 매니저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음악도 있다.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390)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날날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305)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 감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기를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 감시다

이 두 곡의 가사를 바꾸어서 넣어 보면 메시지와 음악의 분위가 완전히 다름을 직감할 것이다.
음악은 사람에게 최면을 거는 힘이 있다.

헨드릭스의 말: 당신은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약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말하고 싶은 것을 그들의 잠재의식 속으로 선포할 수 있다. <Life, 1969년 10월 3일, 74쪽>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광고주, 가장 잘 맞는 음악을 찾으려고 애를 씀
음악은 중립인가?

1. 음 자체는 중립임을 보여 주기 위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나 하나 친다.
2. 멜로디(곡조) 설명: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원수, 1926년)

C F C G7 C G7 C D7 C G7 C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단음으로 리듬 없이 단조롭게 같은 세기로 친다.

3. 하모니(화음) 설명:

이번에는 화음을 넣고 역시 단조롭게 같은 세기로 친다.

화음은 으뜸화음, 버금딸림화음, 딸림화음

다장조 으뜸화음(도미솔, 1도화음, Tonic, C코드), 버금딸림화음(파라도, 4도화음, Subdominant, F코드), 딸림화음(솔시레, 5도화음, Dominant, G7코드)

기타에서는 C, F, G7, D, G, A7, E, A, B7 등

4. 리듬 설명

1박과 3박에 강세

5. 멜로디, 하모니, 그리고 리듬이 들어가면 음악이 풍성해진다.

음 자체는 중립이지만 멜로디, 하모니, 리듬이 들어가면 듣는 이에겐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음악의 비중립성 몇 가지 사례

1. <젓가락 행진곡 (Celebrated Chop Waltz)>은 널리 알려진, 피아노를 위한 작은 왈츠이다. 1877년에 유포미아 앨런이 아르튀르 드 킬리(Arthur de Lulli)라는 가명으로 썼다. 위키백과 보통 한 명이 아니라 둘이 친다. 화음이 생기면서 매우 경쾌하다.
2.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 1807년경 이 곡을 작곡할 당시의 베토벤은 큰 시련을 겪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베토벤의 귀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나폴레옹이 빈을 점령하는 등 그가 사는 세상도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러니 이 교향곡을 운명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와 환희를 그렸다고 해석하는 것도 그럴 듯하다. 곡을 들으면 1악장에서 시련과 고뇌가, 2악장에서 다시 찾은 평온함이, 3악장에서 씩 없는 열정이, 4악장에서 도달한 자의 환희가 느껴진다.
3. 피어 긴트(페르 귄트) 중 솔베이지의 노래: 노르웨이의 그리그
방랑의 길을 떠난 주인공 페르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솔베이지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1876년 초연되었다. <페르귄트 음악에서의 관현악모음곡 제2>(작품번호 55:1891)의 제4곡 <솔베이지의 노래>는 A단조로 시작되는 바이올린의 애수를 띤 선율로 널리 애청되고 있다.
4. 찬송가를 보자.

찬양: 주 하나님 큰일을 행하셨네(451). To God be the Glory Fanny Crosby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네. 그 독생자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저 십자가 죽음에

내주셨네. 땅들아 들으라 주의 귀한 음성,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그 행하신 큰일을 찬양하라.

회개: 나 행한 것 죄뿐이니(254)

나 행한 것 죄 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장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219)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쉬일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나라

5. 리듬의 오용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박자는 (2/4, 3/4, 4/4, 6/8 등) 모두 첫 번째 박자에 강세가 있다.

▶ 2/4박자 (강. 약)

▶ 3/4박자 (강. 약. 약)

▶ 4/4박자 (강. 약. 중강. 약)

▶ 6/8박자 (강. 약. 약. 중강. 약. 약)

예수님 사랑 하심은(327)

마제스티찬송가는 <2/4박자, 내림마장조>이지만, 쉽게 <4/4박자, 다장조> 악보로 설명함.
예수님 사랑하심은 기록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강세: 1박, 2박, 2, 4박, 3박

정상적인 리듬: 1박(강), 2-4박(약)

▣ 1박 강세

예수님 사랑/하심은-/ 기록하신/ 말일세-, /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 2박 강세

예수님 사랑/하심은-/ 기록하신/ 말일세-, /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 3박 강세

예수님 사랑/하심은-/ 기록하신/ 말일세-, /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 2박/4박 강세

예수님 사랑/하심은-/ 기록하신/ 말일세-, /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음악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음악과 사람은 3중적 존재이다:

음악: 멜로디, 하모니, 리듬

사람: 영(하나님 의식) 혼(자기의식, 지정의) 육(세상 의식)

멜로디(곡조, 음악을 만드는 요소) ⇔ 영

하모니(음악의 논리적이고 지적인 요소) ⇔ 혼

리듬(음악의 뼈대) ⇔ 육, 살과 피가 없이 뼈대만 있으면 죽은 송장,

멜로디

주로 사람의 영에 영향을 미친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멜로디가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다. 가사가 없어도 음악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모니

주로 사람의 지정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하모니에 신경을 쓴다. 보통 코드라고 하는 것

즉 음악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멜로디와 하모니를 듣게 된다.

찬양대 연습,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 연습, 따로 따로 들으면 별 감흥이 없다.

그런데 4부를 합치면 엄청난 힘이 나온다.

육과 리듬

우리의 몸은 리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수사의 행진곡, 리듬과 함께 발을 구른다.

광고에 나오는 음악의 리듬에 따라 아이들이 반응한다.

음악에서 멜로디가 으뜸이 되어야 하고 하모니와 리듬은 멜로디를 돕는 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

즉 하모니와 리듬이 반역을 일으키면 혼동이 생기고 혼란이 생긴다.

록 음악, 랩 음악 등은 리듬이 주가 되는 음악이다. 그 결과 음악의 균형이 깨진다.

6. 헤비 메탈, 록 음악, 랩 음악

1. 헤비메탈: 방송실에서 녹음한 것 틀어 준다.

2. 크리스천 락: 방송실에서 녹음한 것 틀어 준다.

3. 크리스천 랩: 방송실에서 녹음한 것 틀어 준다. This Is Living (feat. Lecrae) (Music Video)
- Hillsong Young & Free

4. 리듬을 없애면 좋지 않는가? 안 된다.

노 리듬: 죽은 음악, 너무 많거나 적은 음악: 병든 음악, 균형 잡힌 리듬: 건강한 음악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롬8:8)

1.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롬12:2)

크리스천 락, 크리스천 랩 등, “우리는 세상 록 밴드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하면 안 된다. 세상에 아예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

2. 육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롬13:14)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육신은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우리를 넘겨주려고 애쓴다.

록앤롤이라는 말 자체가 부도덕한 섹스를 뜻한다.

롤링 스톤스의 록음악 백과사전: a blues euphonism for sexual intercourse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한 블루스 스타일의 음악, 그래서 록음악 파티 이후에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디스코 파티 장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보라. 장사가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엡5:19)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골3:16)

두 구절 모두 ‘너희 마음속에서’, 선율(melody), 은혜(grace)

멜로디(총 4번, 사23:16, 51:3, 암5:23, 엡5:19), 곡조, 선율, 노래 가락 등

대개 현악기와 함께 노래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룩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한다.

세상의 음악은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없다(벧전1:15-16).

은혜(골3:16) 170번,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향력, 그리고 그 결과 은혜가 삶에서 반영된 것, 은혜에 방응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롬10:13).

고후5:17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심지어 노래도 새롭게 되어야 한다.

경건치 않은 음악

출32장,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간 금식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기달지 못하고 우상 숭배

내려오는데 무언가가 이상함(7-8), 백성이 벌거벗고 소리를 지르며 송아지 마귀 우상에게 경배를 드림

여호수아가 들으니 적들이 침입한 것 같음(17), 모세의 말(18)

우상숭배(4, 8), 금송아지

부적절한 일이 발생함(25), 대다수 록 음악 콘서트에서 일어나는 일, 벌거벗는다. 남녀가 벌거벗으면 성적 문란함이 일어난다. 브라질의 카니발 삼바 축제, 삼바 음악과 함께(삼바 음악은 템포가 빠르고 매우 리드미컬하다).

성적 문란(6), 일어나 뛰놀다. '뛰놀다'는 말은 남녀가 음탕하게 노는 것을 말함
음악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한다. 이것이 문제이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만든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만든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만든다. 그래서 음악을 조심해야 한다.

히5:12-14,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할 수 있다.

좋은 음악

삼상16: 사울과 다윗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자주 거역함, 그 결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거두어 가시고 악한 영을 보내서 그를 괴롭히게 하심, 우울하게 만드는 영

다윗이 그를 위해 하프를 타매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남

1. 육적인 효과: 사울의 몸이 상쾌하게 됨. 숨을 잘 쉬게 됨(23)
2. 정신적인 효과: 사울이 나음(well), 지정의의 변화
3. 영적인 효과: 악한 영이 떠남

즉 좋은 음악에 의해 사울의 영과 혼과 육이 평안을 되찾음

결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내 혼에 좋은 음악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다.

음악이 나를 잡아매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

특별히 리듬이 육신을 부추기지 않게 해야 한다.

고전6:12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된다: 크리스천 록 음악, 랩 음악: 예수 등이 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세상 음악과 또 같다. 더 바쁘다. 이런데 들어 있는 예수는 성경의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음악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개인의 삶 속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웃 입는 것, 말하는 것, 생활방식, 음악 등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레10:8-11,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고 악한 것을 경계해야 한다(겔44:23)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배에 올 때 거기서 하나님의 순수함과 거룩함, 성도들의 고상함을 보아야 한다. 천국 백성이므로(고전14:23)